



BURBERRY

BURBER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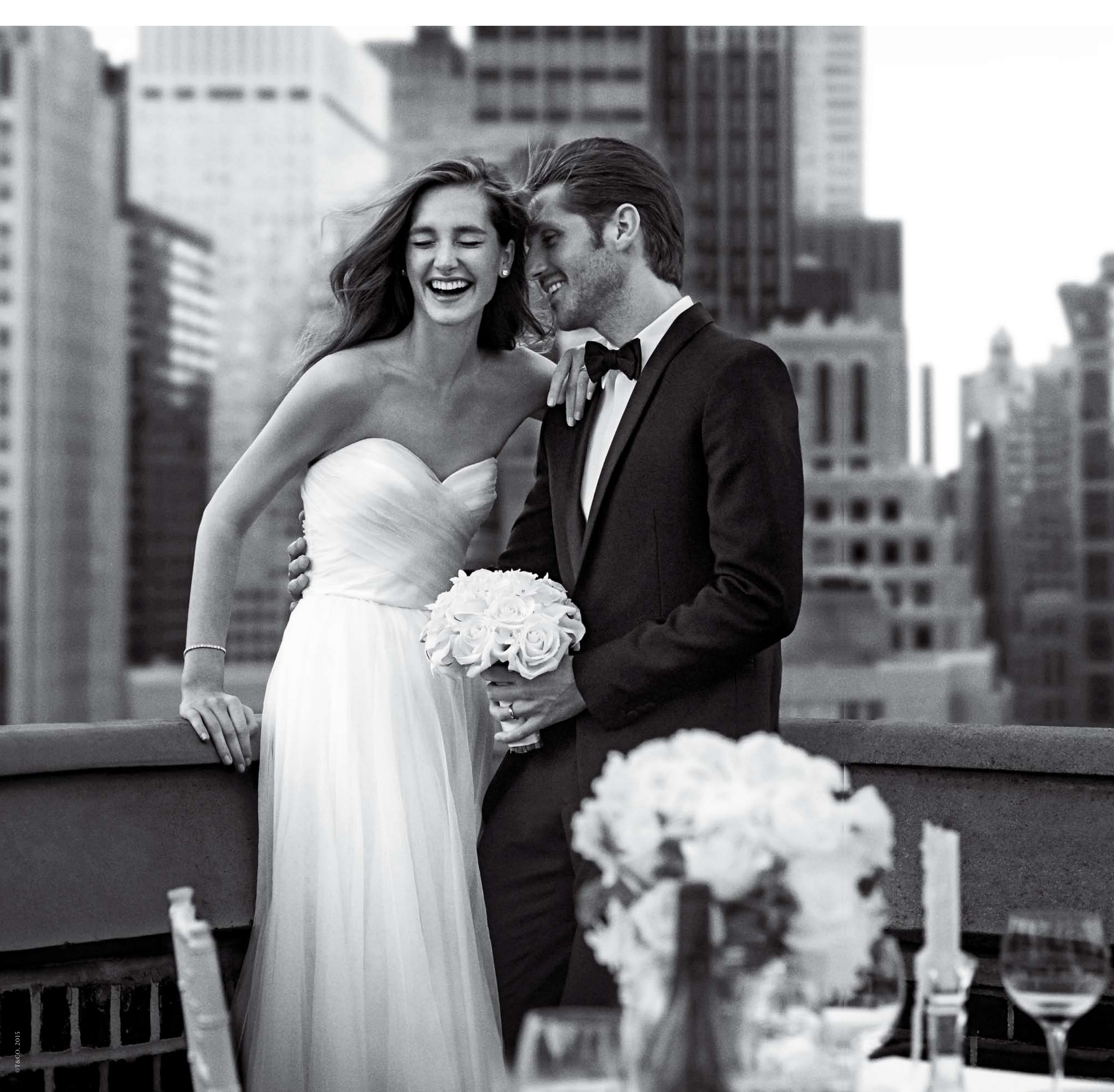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MARCH 2015 vol.121

TOD'S
MADE IN ITALY



내게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단지 당신이 유쾌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하는 기쁨을 표현하기에
 순간의 미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평생 내 곁에서 날 웃음짓게 해 줄래요?

영원히 함께 할래요?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THE TIFFANY BRIDAL EVENT

진정한 사랑의 승교한 상징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주얼리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결혼을 완성시키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2월27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티파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2월27일-3월6일 갤러리아 EAST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3월7일-3월13일 롯데백화점 본점 부산본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AK PLAZA 본당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3월14일-3월20일 현대백화점 본점 신촌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3월21일-3월29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Breguet
Depuis 1775

Breguet, the innovator.

Extra-Thin Self-Winding Tourbillon 5377

The complexity of an extra-thin movement is equalled only by the elegance and slenderness of the watch itself. The Extra-Thin Self-Winding Tourbillon 5377, a complex yet delightfully uncluttered creation, is endowed with an 80-hour power reserve thanks to a patented high-energy barrel. It is a true testament to the daring and creative spirit of Abraham-Louis Breguet, inventor of the tourbillon. History is still being written...





31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토즈의 2015 S/S 광고 비주얼이다.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과 가방 모두 토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라 파카티의 작품.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한 케이프(Cape) 백은 말 안장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나뭇잎 모양의 가죽, 마이애미 가죽을 사용해 더욱 멋스럽다. 문의 02-3438-6008



36



10

- 14 **진정성이란 키워드를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들** 흔히 진정성을 진실과 가치를 나누는 비로미터처럼 여겨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진실도, 완전한 가치도 없을까 보다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 18 **HAUTE JEWELRY** 고귀한 다이아몬드의 노래.
- 20 **TIME TO START** 합리적인 가격의 오토매틱 워치 컬렉션.
- 22 **LOVELY ICON** 작은 보석이 선사하는 일상의 아름다움.
- 24 **NEW SPRING BAGS** 율봉 신상 백 리스트.
- 26 **ACTIVE COUTURE** 스웨트셔츠(sweatshirt)의 럭셔리한 변신.
- 28 **FAIR PLAY** 트렌디하고 우아한 2015 S/S 골프 웨어 컬렉션.
- 30 **THE ARTISANS SPIRIT** 파르미자이나 플라리에(PARMIGIANI FLEURIER)가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계 예술의 세계.
- 31 **2015 SIHH** 세계 최고의 시계 박람회 국제고급시계박람회 SIHH (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
- 36 **SPRING, ACTUALLY** 브랜드마다 고유의 개성을 담은 향연, 울분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44 **NEW ELEGANCE** 따사로운 날씨, 특별한 웨딩,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장 여성스러운 룩은 바로 러블리컬렉션으로 완성된다.
- 46 **DYNAMIC LUXURY** 새로운 루키, 럭셔리포츠의 새로운 도약.
- 48 **SPRING BLOSSOM** 스와로브스키의 2015 S/S 주얼리 컬렉션과 배우 한예슬이 그려낸, 순수하고 화사한 아름다움.
- 49 **BORN TO BE LEGENDS**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환상적인 예술혼을 품고 있다.
- 50 **BRILLIANT TOUCH** 피부 본연의 아름다운 빛과 컬러를 밝혀줄 부드러운 터치, '샤넬 르 블랑 메이크업 베이스'.
- 51 **PURE SKIN** 밝고 화사한 순수 광채로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에 대한 여자들의 소망은 입생로랑 뷰티를 만나 현실이 된다.
- 52 **ART OF SCENT**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향, 에르메스 향수.
- 53 **PERFUME OF PRESTIGE** 메르세데스-벤츠의 성공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작품, 향수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 54 **2015 NEW WHITENING** 2015년 더욱 편리하고 촉촉해진 새로운 화이트닝 제품만 모아 소개한다.
- 56 **URBAN SOPHISTICATION** 패션 브랜드 띠어리(Theory)가 모던하게 디자인한 새로운 브랜드 로고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시작한다.
- 57 **CONTEMPORARY CLASSIC**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벨기에 럭셔리 가죽 브랜드 델보 이야기.
- 58 **ALL DAY LUMINOUS**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마주한 나사의 새로운 파운데이션, '올 데이 루미너스 화이트트라스 파운데이션'.
- 59 **EDITOR'S PICK** 기자들이 엄선한 봄날의 뷰티 리스트.
- 60 **거장의 건축물을 산책하다**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국내에서 감상하는 우리나라 건축 기행.

Style 조선일보 Issue.121 March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컬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ENDI.COM

FENDI

Jewel GEM GARDEN

대지의 기운을 가득 담은 보석으로 완성한 플라워 주얼리 컬렉션.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관동적인 난초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캐리비안 드 오귀에 컬렉션 링 2천1백만 원대 **가르다에**, 오픈워크 기법으로 옐로 골드 밴드 링에 동백꽃을 표현한 캐리비안 링 9백만 원대 **사셀 화인 주얼리**, 핑크 퀴즈를 소재로 기하학적인 형태의 꽃잎을 표현한 알파리얼 컬렉션 네크리스 5백만 원대 **스파르도**, 마크스 컷 다이아몬드로 꽃잎을 표현한 빅토리아 링 9백만 원대 **타피니**,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동백꽃을 표현한 캐리비안 아저르 브러시 슬릿 1천 백만 원대 **사셀 화인 주얼리**, 작위에서 영감을 받은 아바 피브란 링, 0.5캐럿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천만 원대 **부세온**, 에디터 **베버린**



포토그래피 박정원



Fashion GET BUCKET

어릴 적 즐겨 매던 일명 '복주머니 가방'을 이렇게 다시 볼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도 하이엔드 브랜드의 라벨을 부착한 제품이라니.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복고적인 무드에 모던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는 것.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 주목할 버킷 실루엣 백을 소개한다. 에디터 권유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리키 백을 버킷 실루엣으로 재해석한 리키 드로스트링 백, 32X22cm, 2백80만 원 **칼포 로렌 갈락션**, 1920년에 탄생한 노예 버킷 백을 매력적인 미니 사이즈로 재해석한 멜로 갈락시 노예 66백, 24X22cm, 2백만 원대 **루이 비통**, 과거 아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등근 손잡이가 인상적인 샬레트 드로스트링 백, 26X27cm, 가격 미정 **패라기오**, 개성 있는 프렌치 장식으로 트렌디함을 갖춘 앵무새 백, 17.5X14cm, 2백67만 원 **생로랑**, 말린과과 마구에서 영감을 받아 앵고베를 연상케 하는 끈 디테일이 인상적인 그린 컬러 버킷 백, 29X32cm, 2백만 원대 **토트**

포토그래피 박정원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프리미엄 스피릿의 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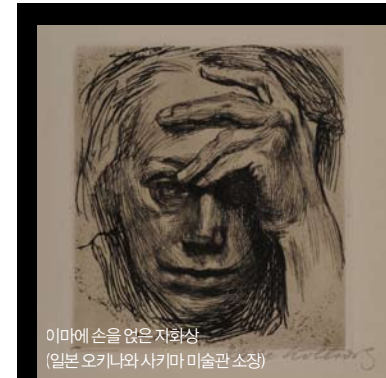
스피릿(spirits) 애호가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프리미엄 스피릿이 봄을 앞두고 근사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요즘 은근히 주목받고 있는 싱글 몰트위스키 글렌모란جت은 새롭게 바뀐 로고를 장식한 더 글렌 리벳 팩홀스 브릿지(The Glenlivet Packhorse Bridge) 싱글 캐스크 한정판을 최근 내놓았다. 스코틀랜드 팩홀스 브릿지를 모티브로 삼은 새 로고를 달고 선보이는 최초의 글렌모란جت 에디션으로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원래 그대로를 병입하는 캐스크 스텝스 방식과 위스키 훈막 현상을 막기 위한 냉각 여과 과정을 거쳤다. 전 세계에서 2백 병만 생산된 제품이다. 마니아층을 거느린 싱글 몰트위스키 글렌모란جت에는 '글렌모란지 라산타(Glenmorangie Lasanta)'를 선보였다. 연한 갈색이 아름다운 이 싱글 몰트위스키는 갓탄 울로로스 세리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된 데다 '세리주의 왕'으로 불리는 페르도 히메네스 캐스크에서 마무리해 한층 진화된 맛과 향을 자랑한다고, 세계적인 위스키 가이드(짐 머레이 위스키 바이블)에서 유쾌한 놀라움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블렌디드 위스키로는 조니워커 청사자의 아들이자 초대 마스터 블렌더에게 헌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알렉산더 워커 에디션이 눈에 띈다. 빅토리아 시대 위스키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은 이 위스키는 실제로 빅토리아 시대에 존재한 증류소를 찾아내 최소 30년산 위스키 중에서도 최상급을 가진 위스키만을 선별해 최상의 비율로 블렌딩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조니워커 하우스 서울을 통해 36병만 만날 수 있다고,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드카 브랜드 앵슬루트의 프리미엄 제품의 감각적인 변신도 눈길을 끈다. 스웨덴 전통 주조 방식으로 자연의 맛을 품고 있다는 앵슬루트 얼릭스(Absolute Elyx)가 새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맵시 가지듯 고풍적이다. 세련된 느낌의 투명한 사각형 병 위에 새겨진 구리 선 모양의 디테일과 뚜껑은 디자인의 미학을 잘 보여주는데, 구리 증류소에서 장인의 손길로 탄생하는 주조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다. 에디터 **고성연**



앵슬루트 얼릭스

글렌모란지 라산타

알렉산더 워커 에디션



Exhibition (케테 콜비츠)展

어떤 시대에도 아픔은 있지만 특하나 20세기 초·중반은 온 세계가 파괴적인 전쟁에 시달린 안 타운 시가다. 그 시대의 고통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차별한 예술인으로 이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여성 판화가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 1867~1945) 전시가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지난 2월 초에 막을 올린 이 전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개최되는데, 독일 민중예술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녀의 예술적 의지와 사회적인 의식, 그리고 기승 역락의 모성까지 깃들었다고 하는 판화 55점과 조각 1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일본 오카나 외에 위치한 시카미미술관의 소장품으로 1800년대부터 1930년대에 창작한 작품들이다. 평생에 걸쳐 2백75점의 판화를 남긴 콜비츠는 다분히 사회참여적인 수단으로 판화를 선택했으며 대부분 흑백으로 제작했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에는 노동자 계층의 고된 일, 질병, 가난 같은 평범의 삶을 표현했고 후에는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형성된 역사적,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잃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 죽음, 모성 같은 문제를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주요 연작 전쟁(1921~1922)은 모성을 보편적으로 승화한 수작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의 유일한 조각 작품 '피에타'(1937~1938)는 후기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죽음에 대한 애도와 평화에 대한 갈망이 절정을 이뤘다고 평가되는 브론즈 조각이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절제미와 날카로운 선이 더욱 애잔한 울음을 주는 그녀의 예술 세계는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희생'이라는 고통을 절감하고 있고 애절한 관객들에게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sema.seoul.go.kr 에디터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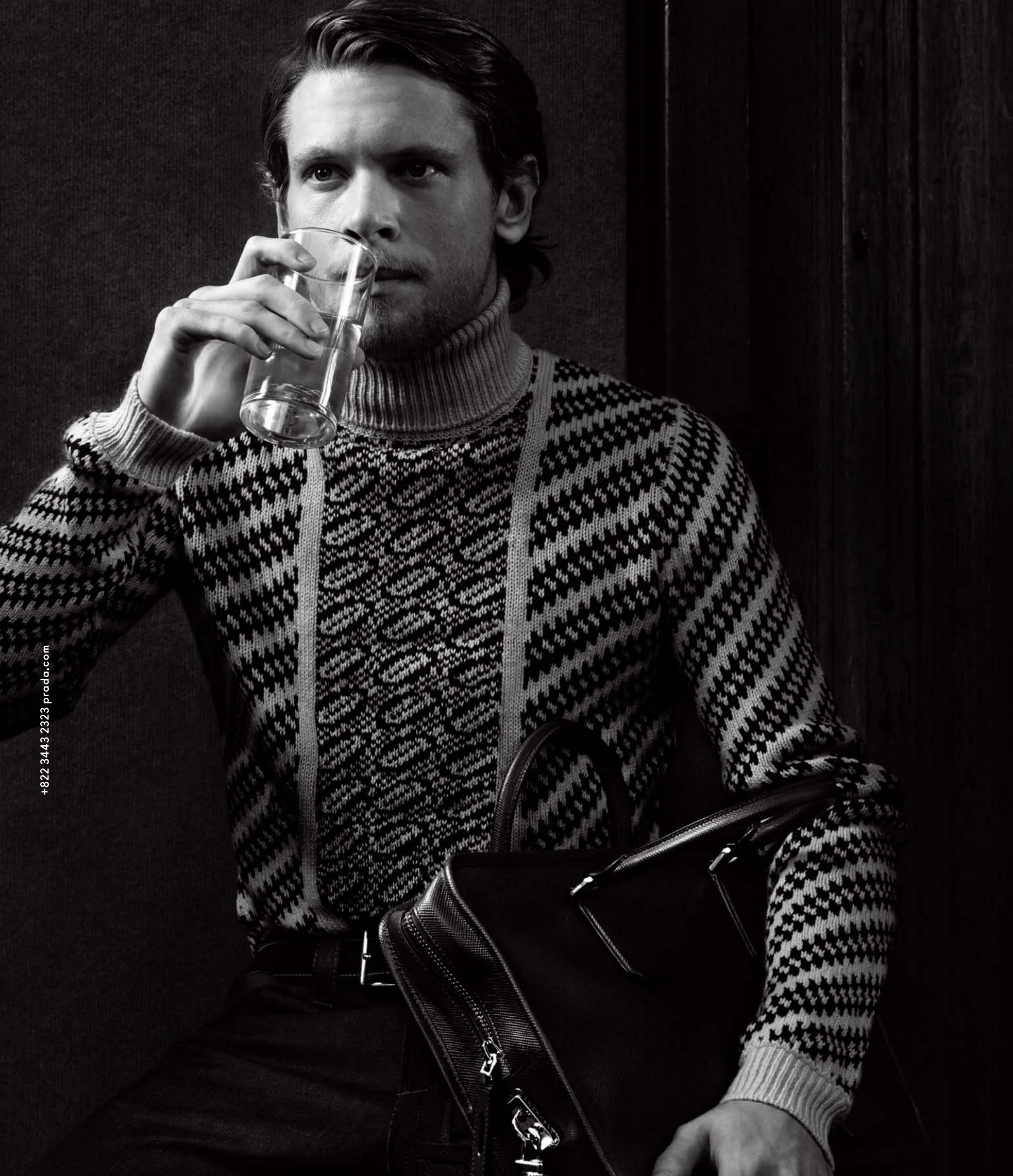
이미에 손을 얹은 자화상 (일본 오카나와 시카미미술관 소장)



포토그래피 박정원

Beauty FOR SENSITIVE SKIN

혹한기를 견디고 피부에 어느새 다가온 봄 햇살이 민감도를 높이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다. 봄이 다가오며 급격해진 일교차에 민감해진 피부를 다스리는 화장품들을 소개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지극을 받았다면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 기능을 겸비한 수분 로션인 **클라리니스 하이드라퀀티 에멀전 SPF 15**을 바를 것. 수분 에센스의 감자껍질 에멀전 역시 강력한 수분력을 자랑한다. 오후 3차 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해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50ml 3만6천원). 일교차가 큰 환경에는 피부가 유난히 푸석해진다. 이럴 땐 피부 깊숙이 수분을 빠르게 채워주는 **케이트 서머빌 너쉬 하이드라퀀티 마스크**로 수분 맥을 하면 도움이 된다.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A·E를 함유해 24시간 동안 피부 속 수분 레벨을 이상적으로 유지시키고 피부에 활력을 부여한다(60ml 9만7천원). 피부 속이 건조한 지성 피부라면 신뜻한 오일 프리 수분 로션인 **베네피트 트리플 퍼포밍 페이스 에멀전 SPF 15 PA++**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3중 효과로 외부 유해 환경이 주는 자극을 최소화한다(50.3ml 4만7천원). 낮 동안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려면 밤을 공략해야 한다. 밤 전용 크림인 **나스 리스틀러 티브 나이트 트리트먼트**는 젤 타입의 크림이지만 피부에 바른 뒤 가벼운 오일로 변하는 포물라가 인상적이다. 피부에 매끄럽게 발리고 걸들지 않아 여러 번 발라도 좋다(30ml 12만8천원). 핵심 성분을 담은 4천 개의 미세 베킵이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하는 **사벨 하이드라 부티 마이크로 세럼**은 피부에 바르는 즉시 물방울로 변하는 텍스처가 단연 돋보인다. 피부가 더욱 탄력 있고 매끈해 보이는 플럼링 효과를 발휘한다(30ml 12만8천원). 에디터 **베버린**, 권유진



+822 3443 2323 prada.com

PRADA

Jack O'Connell
London, October 2014



for her Selection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설레는 법이다. 착착한 코트는 옷장에 잠시 넣어두고 톡톡 튀는 컬러 아이템으로 스타일에 싹트듯한 기운을 불어넣어줄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영양플러스베리의 스카이를 블루를 더한 컬러가 포인트를 선사

도래인의 반에서 영감을 받은 시어이 블랙신 나르스 1만 원대 **포렌시오**.

신뜻한 옐로 컬러의 벨리 투주르 백, 20.5X19cm, 2백31만 원 **펜디**.

편성 디자인이 돋보이는 블랙 화이트 배틀 로라 가격 미장스 **유니온 리츠**.

영양플러스베리의 스카이를 블루를 더한 컬러가 포인트를 선사

비행기 영감을 받은 블랙 화이트 배틀 로라 가격 미장스 **유니온 리츠**.

파란 가문의 풍경을 그린 듯한 실드스카프 50만 원대 **에르메스**.

동그란 프레임이 멋스러운 안경 38만 원 타르트 **옵티컬**.

슬랩한 핑어 여성스러운 트윈드 원피스 3백60만 원 **올 브라운**.

브랜드 로고 장식이 눈에 띄는 핑크 카드 지갑 34만 원 **생로랑**.

블랙 화이트 배틀 로라 가격 미장스 **유니온 리츠**.

옐로 트윈드로 만든 카멜리아 브로치 가격 미장스 **사넬**.

블랙 화이트 배틀 로라 가격 미장스 **유니온 리츠**.

- 사넬 02-543-8700
- 펜디 02-2056-9023
- 몽블랑 02-3485-6627
- 론진 02-3149-9532
- 에르메스 02-544-7722
- 생로랑 02-549-5741
- 바이커 02-543-1270
- 올스미스 02-6957-5818
- 포메라도 02-3213-2260
- 발렌시아가 02-542-1937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올 브라운 02-6905-3697
- 타르트 옵티컬 070-8692-8452
- 스튜어트 와이츠먼 02-6905-3991

RICHARD MILLE



CALIBER RM 07-01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지하 1층 • 02) 2230 1288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최고급 가죽을 사용한 카멜 컬러 뉴스페이스이머 백, 31X39cm, 6백만원대 멜보.



적지않 풍부한 음향을 자랑하는 스피커 7만5천원, 아이폰5 모형 2만4천원 모두 팝콘 by 바이커.



신축성 있는 소재의 레이스업 슈즈 7만 1천원 지미유.



단정하고 심플한 라인의 바이커 코트 2백80만원 톨 브라운.



블록 핸즈가 돋보이는 클래식 칼리버 1887 메카니컬 크로노그래프 41mm 워치 6백만원대 테그호이어.

for him Selection

스마트한 인상을 어필하고 싶다면, 소품 하나도 멋스럽고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고를 것.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요소를 더한 아이템이라면 금상첨화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가죽 꼬임이 멋스러운 스카족 팔찌 27만원 토즈.



시계 모양의 컵스 링크 43만원 타테오시안 by 분더삼.



손으로 만 들어보게끔 개성 있는 시트러스 우디 계열의 아티잔 오드 퍼퓸, 125ml, 11만3천원 존 바바토스.



강력한 컬러 드로잉 패턴의 실리 타이거 격 미장 디올.



항중량급 사인스 계통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화제를 그른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 에디션인 필 1백만원 몽블랑.



스포티한 실루엣이 멋스러운 스카족 백팩, 45X38cm, 3백만원대 루이 비통.



화이트 셔츠 50만원대, 블루 니트 1백50만원대, 블랙 재킷 4백5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질로 제너.



GG 로고 패턴이 조 단아한 69만원대 지미유.



지적인 이미지를 더하는 클래식 안경 40만원대 올리버 피플스 by 록스타카 코리아.



바이커 디자인의 그래픽 스카족 벨트 57만원 지미유.

- 멜보 02-3449-5916
- 바이커 02-543-1270
- 디올 02-513-3232
- 구찌 1577-1921
- 토즈 02-3438-6008
- 몽블랑 02-3485-6627
- 분더삼 02-3444-3300
- 테그호이어 02-776-9018
- 루이 비통 02-3432-1854
- 톨 브라운 02-6905-3505
- 지방시 02-517-7560
-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 지미유 02-3443-9469
- 존 바바토스 02-3443-1805
- 에르메네질로 제너 02-2240-6521

스타일링: 우원정, 이은정, 이예림, 박혜미, 에디터: 권유진

EMPORIO ARMANI

SWISS MADE



emporioarmaniswissmade.com - ARS 7202



진정성이란 키워드를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들

진정성만큼 요즘 최고의 덕목으로 각광받는 키워드도 드물 것 같다. 개인적 대인 관계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이든, 상품과 서비스 같은 경제적 산출물을 띄우고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이든 다양한 영역에서 그렇다. TV 속 예능 버라이어티 캐릭터조차 진정성이 있어 보아야 인기를 얻는다. 이렇듯 흔히 진정성을 진실과 가식을 나누는 바로미터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진실도, 완전한 가식도 없을지 모르다며 보다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인간사에는 유일하거나 영원불멸한 정체성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논리에서다.

진정성은 요즘 가장 빈번히, 그리고 관심 있게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대인 관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추구하고, 조직에서는 진정성을 리더십의 핵심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진성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도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도 진정성이 녹아든 마케팅을 펼치라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심지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진정성의 면모가 엿보이기를 상당수가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들 가짜에 신물이 난 모양새다. 이처럼 다수가 갈망하는 진정성이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 혹은 트렌드라 부르기도 할 만큼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진정성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진실하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일까? 가식은 옳지 않은 것일까? 어떤 이들은 오해의 겹겹이 진정성이란 단어를 겹겹이 둘러싼 경우가 꽤 많다고 말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온 이들의 주장에 귀기울여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대중이 원하는 진정성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진정성이 있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의미를 떠올린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지 못하면 스스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에 어긋난 언행을 해도 '진정성 결여를 외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점점 많은 이들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진실과 가식으로 나눠 생각하고, 때때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체험 경제' 이론으로 명성이 높은 학자인 제임스 길모어와 조지프 파인 2세는 "진실한 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는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주문한다. '진정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예술 작품을 가리킬 때 모사품(copy)이나 복제품(replica)이 아닌 '진짜(authentic)'라는 맥락에서 자주 쓰였다고 한다. 미술품이나 원석이 중요한 보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품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본래의 의도나 특성이 그대로 묻어나고, 가치도 높으니(게다가 모조품은 불법이기도 하므로 '옳고 그름'의 문제에도 걸린다). 하지만 대인 관계나 직장 생활, 마케팅 전략처럼 심리 요소와 역학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진정성을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데다 가치의 역학도 변화하는 영역에서는 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개개인의 실생활과 직접 엮여 있지 않은 TV 속 세상을 생각해봐라. '연기'와 '실장'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 방송인데도 보다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관촬 예능이 대세일 정도로 요즘 진정성에 대한 수요는 높

다. 그런데 출연자가 좋은 인상을 주려 하거나 지나치게 뉘면 가식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자칫 재미가 떨어지기도 해서 "다큐 찍냐"라는 비아냥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 관계자들은 대중이 진정성을 자주 운운하지만 실제로 '100% 민낯'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공급자와 수요자의 목적, 그리고 가치의 중심이 전부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면 진실과 가식의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방송인으로서 진정성은 배우든, 개그맨이든, 가수든 이미 직업적인 이미지와 프로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리더십은 아닌 이유

이러한 경계의 미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듯하다. 나와 상대방,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 차원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말이다. 완벽한 자기기만이나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진실과 가식의 경계를 상징하는 건 자신의 괜한 죄책감이나 염려일 뿐, 현실적으로는 여러모로 해가 될 수도 있는 '아마추어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실제로도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다러 있지 않은가?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의 헤미니아 아이바라 교수는 자아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정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한 가지라고 생각할 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최근 세계적인 경영지(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게재된 '진정성의 역설(The Authenticity Paradox)'이라는 글에서 특히 조직의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보다 책임감 있는 리더 역할을 맡으면 진정성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예가 많은데, '스스로 생각하는' 본연의 성향을 거스르면 본인이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가면 쓰고 있다는 명언도 있듯이, 자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역할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모습을 껴입어내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아이바라 교수는 말한다. 언뜻 진실을 드러내면 알아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까지 드러내면서 완벽하게 투명해진다 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다는 논리다. 조직 생활을 예로 들자면 새로 부서장을 맡은 사람이 "나 사실 이 일이 두려워"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적'이라고 느낄지는 몰라도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당당히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바람에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를 경험해

본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저 사람 변했어"라는 쓴소리를 들을지언정 자신감과 신뢰를 붙여 넣는 리더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물론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굴거나 으스스대는 식의 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바라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다소 가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유연한 진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진정성 마케팅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도 이러한 유연성은 중요하다. 진정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춘 기업이 21세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놓은 밧에 걸릴 수도 있다. 일단 내뱉은 말을 실천하지 못하거나, 애써 구축한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제임스 길모어와 조지프 파인 2세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사가 진정성이 있다고 홍보한 기업들은 양날의 검을 쥔 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진정성을 위한 규범은 경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도 있지만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K마트, 유니타이트 항공사,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은 비효율적인 공급망, 고비용 구조, 저품질 생산품의 문제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정성의 연출이나 체험의 부각에 주력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한다고 어설피게 따라 하는 식으로 진정성 마케팅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다. 심지어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고 공감 빈도가 높다면 진정성의 면모를 남용하면서 홍보를 펼치는 기업들은 진실이 탄로 났을 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기도 한다. '뒤통수'라는 쉽게 떨쳐내기 힘든 오명을 안으면서 말이다. 물론 진정성 마케팅으로 훈훈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미국 홍보 에이전시 콘 앤드 울프(Cohn and Wolfe)는 지난해 가장 진정성 있는 20대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이 목록에서는 월마트,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타겟 등의 기업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다.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자랑하는 기업들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량 기업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라고도 할 수 없다(예컨대 막강 브랜드를 자랑하는 맥도날드는 7위에 그쳤다). 진정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기업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그런 대접을 받는다. 비누 같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면 천연 원재료 같은 요소에서도 진정성을 느끼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에서도 진정성을 느낀다고 분석된다.

호텔, 항공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는 손님을 진실로 대하는 봉사와 배려 정신에서 진정성의 가부가 판가름된다고 한다. 또 스타벅스처럼 '체험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열망을 끌어내는 연관성이 중요하다. 커피라는 문화를 진정성 있게 공유하려 한다는 뜻을 매장에서 전달하도록 노력한 덕분이라는 것이다(물론 매장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데 난계를 맞았다는 평도 듣지만).

진정하지 않음을 '쿨하게 인정하는 진정성의 역발상

경영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신이 진실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활동을 '진정성의 연출'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소비자가 그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 연출에 공감해야 하는 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체험'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고 언제나 수요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기업이든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든 모두 해당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무조건 투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라는 얘기는 아니다. 투명성은 당연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정을 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덜 매력적인 부분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가 말이다. 위의 '연출'이라는 단어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TV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듀서나 출연진처럼, 혹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처럼 감정에 지나치게 솔직하기보다는 자신의 역할과 효용을 잘 알고 '최선의 결과물'을 위해 냉철한 프로답게 일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인생을 가리켜 '내면의 진정한 자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꾸며놓은 무대장치'라고 했다. 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모든 행동이든 꾸며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상호작용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면의 진정한 자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완벽히 알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러므로 진정성의 잣대를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선부르게 휘둘러줄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다른 모습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역할이나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에 맞는, 자아 속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면모를 개발하려는 자세야말로 진실된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 그걸 연기나 연출이라고 부른다 해도 말이다. 그리고 누군가 의혹 어린 시선을 던지면 제임스 길모어의 충고처럼 그냥 100% 진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 자체 정도는 '쿨~'하게 인정해버리면 어떨까. 불세출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희곡에서 "세상은 무대이고, 누구나 배우일 뿐"이라는 대사를 남기지 않았는가. **NS** 에디터 고정연



SWAROVSKI.COM



Miranda Kerr


SWAROVSKI

Haute jewelry

섬세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아름다운 결정체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장인의 손길은 보석이 지닌 마법에 리듬을 부여한다. 코르셋과 별, 팬더로 생명력을 얻은 고귀한 다이아몬드의 노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맨더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까르띠에의 역사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맨더,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오픈스, 에메랄드로 유연하고 자유로운 맨더의 모습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타사키 이브스트레크 스타 네크리스** 반짝이는 별의 외곽 형태를 독특하게 재해석했다. 5천4백만원대. **티파니 빅토리아 일타이밍 브레이슬릿** 꽃잎을 이루는 마카조 컷 다이아몬드를 플라타네에 섬세하게 세팅한 컬렉션 6천4백만원대. **샤넬 와인 주얼리 프란지스형 브레이슬릿** 시드니 프란지스 대장군을 다정한 카팅의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브레이슬릿, 총 2.72카트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10개와 총 16.69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33개, 록 크리스털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볼가리 디바 주얼리 컬렉션** 부채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배치해 독창적인 매력, 카리스마,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여성의 관심을 강조한 컬렉션.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와인 주얼리 가멜리아 갈베 브레이슬릿** 볼륨감 넘치는 화이트 세라믹 소재 동백꽃 모티브에 18K 화이트 골드 밴드를 더해 모던한 브레이슬릿의 형태를 완성했다. 1천7백만원대. **부세온 세팅 보렐 네크리스** 벨의 머리에서 영감을 얻은 드롭 모티브를 다양한 크기로 배워한 롱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천만원대. **타사키 오플런스 네크리스** 코르셋 모티브를 네크리스로 표현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어우러져 극도로 여성스럽다. 6천4백만원대. 에디터 배미진

까르띠에 1566-7277 부세온 02-3213-2246 타사키 02-3461-5558 볼가리 02-2056-0172 티파니 02-547-9488 샤넬 와인 주얼리 02-3442-0962

볼로리스 (06 06 vivie)



GIVENCHY
PARIS



블루 사츠 에르메르도 프코드.

(왼쪽) 미도 카벤더 II COSC 칼라버 80 스타다셀러 라인으로 초기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 레드 컬러 포인트의 클래식 워치. 80시간 파워 리저브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매년 스위스에서 제조하는 워치 중 단 5%만이 통과하는 엄격한 COSC 인증을 받았다. 1백52만원.

(오른쪽) 미도 멀티오트 서울 GMT 1981년 스위스에서 탄생한 미도를 대표하는 워치. 세계 각 도시를 표기된 월드 타임 존에 도쿄가 아닌 서울을 기준으로 표기한 한정판 에디션이다. 42mm 케이스에 제너러 스톱라이트 패턴의 다이얼이 멋스럽다. 1백52만원. 문의 02-543-7865



세크 패턴 사츠 올코드.

(왼쪽) 모리스 라트르와 폰투스 클래식 시간과 날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클래식 워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탄자움 알티메이타 스트랩을 매치해 완성한다. 오토매틱 ML09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2백만원.

(오른쪽) 글라이시 에어벤 남버원 파우더 워치의 명가 글라이시를 대표하는 에어벤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는 워치. 36mm 케이스에 반구형의 헤질라이트 글라스를 더해 더욱 비타한 느낌이 든다. 2백30만원. 문의 02-3213-2248

time to Start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 열정과 진지함을 무기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프레스맨에게 추천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오토매틱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블루 사츠 올코드.

(왼쪽) 티쏘 헤리티지 네비게이터 올해 새롭게 선보인, 서울 타임 존이 포함된 한정판 에디션. 다이얼에 전 세계의 시간 정보를 모두 담은 독특한 모델이며 COSC 인증을 받았다. 1백79만원.

(오른쪽) 티쏘 슈방 데 두벨 스텔레트 1907년 티쏘 공장을 세운 가에서 이름을 딴 스텔레트 컬렉션. 기계식 워치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2백23만원. 문의 02-3149-8237



블루 사츠 브라운.

(왼쪽) 헤럴드 재즈마스터 오토 크로노 시, 분, 초, 날짜는 물론 타임카림,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갖춘 기계식 시계를 원하는 남자들을 위한 완벽한 워치. 42mm 케이스에 H-21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2백25만원.

(오른쪽) 헤럴드 오픈 하트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카팅한 다이얼 시야로 정밀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데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면이 매력적이다. 1백16만원. 문의 02-3149-9583 에디터 베이진

스타일리스트 유민정, 이세영, 박미진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5100 www.hugoboss.com



BOSS
HUGO BOSS

Sweet swing

(왼쪽부터) **까르띠에 아틀라드 드 까르띠에** 자개와 오픈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아틀라드 드 까르띠에 미디엄 사이즈 네크리스 1천8백만원대, **타사키 밸런스 플러스** 링 최상급 이코아 진주를 일렬로 세팅한 링 1백90만원, **타파니 T 스미일 펜던트** 심플하지만 강력한 미소를 표현한 네크리스 5백만원대, **쇼에 프라미에 라랑 옐로 골드** 링 브랜드를 대표하는 오티브의 라랑 링,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사랑스럽다. 3백만원대, **불가리 큐오에 갈렉션** 진심한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오티브에 불가리 로고를 새겨 넣은 네크리스 3백만원대, **타파니 T 스케이 링** 로즈 골드 심플하게 T 로고를 표현한 링 1백만원대, **까르띠에 라브 네크리스** 핑크 골드, 브라운 세라믹, 1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브 네크리스 5백만원대, **타파니 오픈 하트 펜던트** 영원한 사랑의 상징, 하트 오티브를 사랑스럽게 완성한 네크리스 1백만원대.



AIGNER
CELEBRATING 50 YEARS

Lovely icon

미소를 연상케 하는 위트 있는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아이콘 하트 모티브, 매일 함께하는 은은한 매력의 펜던트와 스타일에 리듬감을 불어넣는 심플하고 멋진 링까지, 작은 보석이 선사하는 일상의 아름다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Unique pieces

(왼쪽부터) **타사키 밸런스 플러스 네크리스** 곡선이 있게 세팅한 이코아 진주가 아름다운 네크리스 2백90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울트라 갈렉션** 링 화이트 세라믹에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새로운 디자인의 링 4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울트라 갈렉션 펜던트** 강렬한 블랙 세라믹에 다이아몬드로 밤하늘을 표현한 뉴 갈렉션 9백만원대, **소피드 해미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시간형 케이스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매력적인 네크리스 5백만원대, **부세온 바렐 보렐 화이트 골드 옐라테어 링** 세밀하게 세공한 트위스트 체인에 0.2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4백만원대, **타사키 어브스트랙 스타 네크리스** 반짝이는 별의 윤곽선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새로운 디자인의 네크리스 6백30만원대, **부세온 워트르 펜던트** 블랙과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정교한 세공이 돋보이는 펜던트 9백만원대, **타파니 인벤트 하트 링** 물방울이 맺혀 있는 듯 다들 하트를 묘사한 다이아몬드 링 5백만원대, **에디터 베이진**



AIGNERMUNICH.COM





Exotic charmer
 (위부터 아래로) 페라가모 피암마 미니 백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피 마 백의 하이엔드 라인으로, 비단백 가죽에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라벤더 컬러를 더했다. 16X16cm 3백만원대, 문의 02-2140-9642
 풀플로 비아 델라 스파가일로 백
 밀로의 비나스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적인 형태와 유려한 곡선 라인이 특징인 약아자족 토트백, 33X22cm 2천5백만원대, 문의 070-7130-9200



Color block
 (위부터 아래로) 셀린느 라지 백 양 의 날개가 처진 듯 독특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블루, 네이비, 그레이의 컬러 조합으로 세련미를 강조했다. 26.5X40cm 3백만원대, 문의 02-3213-2298 발리 스페 플드 백
 여성스러운 컬러 조합과 미니멀한 형태가 돋보이는 토트백, 넉넉한 수납공간과 플더 형식의 디자인이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한다. 34X24cm 2백90만원대, 문의 02-3467-6213 바버리 미니 비 백 핸드 페인팅한 가죽 소재의 미니 백으로, 강렬한 원색 배치와 페인트 트리밍이 특징. 핸드 페인팅한 모사문에서 정교함이 느껴진다. 21X19cm 3백70만원, 문의 02-3385-6536

New spring bags

화창한 봄을 알리듯 형형색색의 산뜻한 컬러와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스프링 룩의 정점을 찍을 올봄 신상 백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Jewel point
 (위부터 아래로) 발렌타노 1973 미니 락 백 by 무이 다채로운 스트라이프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패턴과 스티드 장식의 강렬하고 경쾌한 룩을 완성하는 미니 스트랩 백, 19X13cm 1백83만원, 문의 02-3446-8074
 펜디 트라바카트 백 펜디의 상징인 바게트 백을 재해석한 컬렉션으로, 으로 둘러싼 작은 선으로 아자미 모습을 바꾸는 버클이 핵심 포인트다. 27X16cm 5백42만원, 문의 02-2066-9023 토즈 케이프 백 케이프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유연한 실루엣과 기하학적인 패턴, 주얼 장식이 우아하게 아우라진 화이트 토트백, 27X20cm 3백50만원대, 문의 02-3438-6008



Color of candy
 (위에서부터 아래로) 엘보 미담 미니 갈퀴사 백 모던한 직사각형 디자인의 미니 솔다백, 플로 가죽에 텍스처가 독특한 가로리자국을 매치해 세련미를 더했다. 18X16cm 4백만원대, 문의 02-3449-5916 로저 비비에 미스 비브 미니 백 195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정사각형 디자인과 네모난 버클이 눈에 띄는 핑크 컬러의 토트 겸용 솔다백, 16.5X16cm 2백40만원, 문의 02-6905-3370 루이 비통 밀리 백 우아한 실루엣, 넉넉한 수납공간과 탄탄한 소재로 실용성을 갖춘 토트백,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다. 35X24cm 3백만원대, 문의 02-3432-1854 에디터 권유진

스타일리스트 유민정, 어시스턴트 이서연, 박희미



BEANPOLE

MYEONGDONG FLAGSHIP STORE, SEOCHO D'LIGHT, SHINSEGAE MAIN, SHINSEGAE GANGNAM LOTTE MAIN, HYUNDAI MAIN, HYUNDAI COEX, COEX MALL, IFC MALL, LOTTE WORLD MALL, TIME SQUARE MALL
 WWW.BEANPOLE.COM WWW.FACEBOOK.COM/BEANPOLE.KR

active Couture

어릴 적, 체육 시간에 입던 그저 그런 추억의 맨투맨 티셔츠가 아니다. 밤상치 않은 패턴과 한땀 한땀 정성 들여 수놓은 자수 장식, 그리고 고급 소재인 실크와 가죽 소재의 활용으로 1백만원을 호가하며 몸값을 올린 스웨트셔츠(sweatshirt)의 변신.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플라워 모티프를 기하학적 패턴으로 완성한 핑크 스웨트셔츠 1백만원 **에임리오 푸치 by 본다삼** 실크와 면의 조화로운 기하학적 패턴의 조화가 개성 있는 스웨트셔츠 70만원대 **피토 워로드 by 무이**, 무릎부터 종아리, 원숭이, 사자까지 우트 있는 동물 패턴의 네오프렌 소재 스웨트셔츠 1백37만원 **발렌티노**, 브라운 고유의 파이폴리 패턴을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한 스웨트셔츠 53만원 **에트로**, 베이스한 맨투맨 디자인에 상징적인 스트라이프 모티프를 다한 네오비 스웨트셔츠 55만원 **를 브라온**, 원색 스웨트셔츠 장신형 서퍼보드 패턴의 블랙 스웨트셔츠 56만원 **5천원 마쿠스 루퍼 by 를 그레이하운드**, 워트 있는 도넛 더 캐리더 패턴을 스웨트셔츠로 훌륭히 장식한 다크 스웨트셔츠 2백38만원 **필립 콜라진**, 미국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아저씨 프린트의 스웨트셔츠 69만원 **오프닝 세레모니 by 를 그레이하운드**, 에디터 **베미진, 권유진**

무이 02-3446-8074 발렌티노 02-3443-4494 에트로 02-511-2573 를 브라온 02-6905-3505 를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필립 콜라진 02-544-9132 본다삼 02-2056-1232

CASIO®

Sync with the world.

THE WORLD'S FIRST*1 FULL-METAL GPS HYBRID WAVE CEPTOR*2

*1 Full metal 시계로서 2014년 9월 카시오가 조사한 바에 따름. *2 카시오의 독자적인 슬라 충전 시스템으로 구동하여 GPS로 위치 측정 및 전파 수신으로 시각을 수정하는 기능.

GPS HYBRID(하이브리드)전파 시계란 표준 전파는 지상에 있는 전파탑에서 송신되는 그 지역의 표준시각을 알리는 전파이며, GPS 수신은 전파탑이 없는 지역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해당지역의 표준시각을 알려준다. 평상시에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표준 전파를 수신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마존에 가게 되면 GPS 수신을 통해 세계 내의 위치 정보를 아마존으로 전환시켜 현지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표준 전파와 GPS 전파라는 2가지 전파 수신 시스템을 융합한 시계를 GPS 하이브리드 전파 시계라고 한다.

CASIO COMPUTER CO.,LTD. Tokyo, Japan



GPS HYBRID WAVE CEPTOR



Dual Dial World Time



OCEANUS Blue



- GPS satellite data & Radio Wave reception
- Just one push time adjustment anywhere in the world
- Titanium case and band

G-Cosmo
(주) 지-코즈모
02-3143-3011~19

- 제품에 대한 보증 및 A/S는 일본 CASIO사 한국 공식 수입원인 G-COSMO가 발행한 보증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제품 구매시 G-COSMO의 공식 보증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COSMO의 공식 판매처는 www.gcosmo.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고 게재 모델 "OCW-G1000" 판매처 | I태원 G-FACTORY 02-3785-0718, 롯데 본점 02-772-3277, 롯데 잠실 02-2143-7427, 현대 목동 02-2163-2270, 신세계 분점 02-310-5272, 신세계 인천 032-430-1489, AK 수원 031-240-1290, 롯데 광복 051-678-3057, 대전 갤러리아 042-720-6198, 롯데 대구 053-660-3128, 롯데 울산 052-960-5211, 롯데 광주 062-221-1542, **면세점** | 인천공항점(CASIO 매장) 032-743-7922

SPECIAL EVENT

오셔너스 구매 고객께 추첨을 통해
비즈니스클래스 뉴욕 왕복항공권을
드립니다. (기간: 2/21~3/22)

www.gcosmo.co.kr

Women's golf collecti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플립 있는 자수 로고 디테일이 포인트인 화이트 모자 62만8천원 **타이틀리스트**, 잔잔하게 프린트한 기하학 패턴이 돋보이는 토트백, 37X26cm, 18만원 **엘로드**, 한국 여성 골퍼에게 최적화된 드로우 스피드 슬라이스 회전을 억제하고, 오로지 사프트로 큰 비거리를 실현하는 리루즈 드라이버 70만원, 핫 메탈 소재를 사용한 고반발 페이스와 크로스웰 세이프 구조로 큰 비거리와 타구감을 자랑하는 리루즈 아이언 1백80만원, 사탕스러운 리본 장식과 핏팅 패턴을 더한 레드 캐디 백 89X33cm, 가격 미정 모두 **미즈노**, 스트라이프 패턴 티셔츠 23만8천원, 절로 감성이 느껴지는 네이비 로고 베스트 27만8천원 모두 **파리 게이츠**, 나뭇잎 패턴의 메시 장갑 8만원 **엘로드**, 하이얼인 걸 프린트로 경쾌한 트로피컬 무드가 느껴지는 선 바이저 12만8천원, (모자 위) 해골 모티브의 볼 마커 5만8천원, 포켓에 수놓은 해골 자수와 핑크 & 블루 그래픽이 멋스러운 스커트 33만8천원, 'Golf or Die(골프 아니면 죽을)'라는 워드 있는 메사지를 새긴 네온 컬러 골프공 3개입, 2만8천원 모두 **마크앤로나**,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실버 패턴의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가격 미정 **엘로드**, 네온 컬러의 약마 모티브가 개성 있는 화이트 벨트 14만원 **확**.



fair Play

거미줄 패턴을 더한 캐디 백부터 요즘 가장 트렌디한 스냅백과 하와이언 걸 패턴의 액세서리까지, 골프 웨어에 대한 편견을 단번에 깨줄 트렌디한 요소와 유틸리티를 담은 2015 S/S 골프 웨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Men's golf collecti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프린트가 개성 있는 캐디 백, 91X38cm, 58만원 **확**, 해골 모티브의 그린 네임 태그 42만8천원 **마크앤로나**, 스카일라 도트 패턴의 스냅백 10만8천원 **파리 게이츠**, (모자 위) 워드 있는 거미줄 모양의 볼 마커 3개입, 3만원 **확**, 정확한 샷 컨트롤을 능력과 비거리를 향상시킨 모델로, 보론강(boron steel)을 첨가해 페이스 강도를 향상시켜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사하는 JPX850 포지드 아이언 1백만원대 **미즈노**, 레드 스트라이프의 라바슬이 감각적인 원 팀 클래식 골프화 53만8천원 **파리 게이츠**, 탄력 있고 가벼운 소재의 코트 벨트 14만원 **엘로드**, 면과 나일론을 혼합해 쾌적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하는 체크 패턴 31만8천원 **타이틀리스트**, 강렬한 블랙 컬러의 스타워즈 한정판 골프공 7만8천원 **마크앤로나**, 바이커 장갑을 연상케 하는 스타드 장식이 유난히 장갑 5만원, 배트맨 모티브의 벨크로 클로저가 돋보이는 장갑 3만8천원 모두 **확**, 수분과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뛰어난 단열 효과를 자랑해 플레이 시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하는 하늘색 후드 점퍼 33만8천원 **타이틀리스트**, (점퍼 위) 골프공 모양의 볼 마커 가격 미정 **확**, 에디터 권유진



미즈노 02-6360-0263
 엘로드 02-3677-8831
 확 02-3677-8831
 마크앤로나 02-727-1490
 파리 게이츠 02-2049-6821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스타일리스트 유영정 어시스턴트 이서영, 박희미



La Rouge
 2015년, 나에게 선물하는 가장 핫한 레드 - 라루즈

La Rouge PRODUCED BY Mizuno 드라이버 | 우드 4,5 | 유틸리티 22도, 25도 | 아이언 5~9, P, G, S



the artisans Spirit

오직 최고급 시계 브랜드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정제된 시계 박람회 SIHH, 매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이 특별한 박람회에서 기술력은 물론 예술성까지 아낌없이 보여준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 (PARMIAGIANI FLEURIER)가 이야기하는 탁월한 시계 예술의 세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우아함으로 완성한 시계 장인의 예술품

올해 파르미지아니는 SIHH에 참여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중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펼쳐며 주목도를 높였다. 최고의 자동차 부가티와 컬래버레이션해 선보인 10주년 기념 모델, 역시 놀라운 예술적 완성도로 아르누보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유라공예품을 선보이는 라리크(Lalique)와 함께 선보인 토크 레핀 탁상시계는 다른 시계 브랜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파르미지아니의 독보적인 작품이다. 2004년 첫선을 보인, 부가티와의 협업 10주년을 기리는 세 가지 새로운 에디션은 최초의 부가티 에디션 타입 370의 원통 형태를 차용했다. 부가티 미쓰, 부가티 레벨라시옹, 부가티 빅투아르로 이루어진 3개의 위치는 자동차를 시계로 재탄생시키는 시계 예술의 관점을 적용한 것은 물론, '손목에 감긴 엔진'이라는 최초의 부가티 위치에 대한 해석에 충실한 클래식한 버전이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2천2백70시간이 소요된 라리크 에디션 역시 만드는 과정과 완성품을 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지금 당장 박물관에 전시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이 작품은 예술성에 대한 집념이 없다면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을 요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요소를 갖춘 위치를 만들어낸 것은 클래식한 손목시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아하게 완성한 미셸 파르미지아니의 안목이 낡은 결과다.

톤다 1950, 그 새로운 도약

살아 있는 기념비적인 시계 장인, 이 시대 최고의 시계 복원가로 알려진 미셸 파르미지아니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위치는 톤다 1950(Tonda 1950). 올해 SIHH에서도 파르미지아니의 정수가 담긴 톤다 1950 시리즈의 다양한 변주가 펼쳐졌는데, 그 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스키텔론을 적용한 남성과 여성 위치. 파르미지아니 인하우스 무브먼트 PF705의 브리지와 메인 플레이트를 오픈워크 처리해 선과 각이 정교하면서도 강렬한 것이 특징이다. 모두 수공으로 제작하는 만큼 장인의 세심한 손길이 담겨 있다. 파르미지아니 위치를 상징하는 러그 옆면의 물방울 모양을 패턴화해 브랜드의 DNA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았다. 남성 모델의 경우 전면에서 완벽하게 스키텔론 처리한 무브먼트를 볼 수 있어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다. 톤다 1950 스키텔론 모델의 반전은 바로 여성 모델인데, 반투명한 글라스로 마치 안개가 낀 듯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공돌이 만든 스키텔론 무브먼트를 모두 노출시키지 않고 반투명한 글라스로 은근한 매력을 담은 것이 눈에 띈다. 여타 브랜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던하고 우아한 다이얼로, 드러내기보다는 품격을 추구하는 파르미지아니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은 디자인이기에 소장 가치가 높다.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은 모델은 가공하지 않은 운석의 불규칙한 특성을 고스란히 다이얼에 담은 톤다 1950 메타오리트 에디션. 가공하기 어려운 운석을 소재로 했기에 케이스 역시 이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티타늄을 활용해 제작했다. 가공 방식에 심혈을 기울여 티타늄이지만 마치 화이트 골드나 플래티늄을 사용한 것처럼 매끈하게 표현해 수공으로 완성하는 파르미지아니의 저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컬러는 블랙과 에비스 블루 두 가지이며 각 50개 한정으로 출시했다. 뒤를 이어 새롭게 선보인 톤다 1950 브레이슬릿 버전은 파르미지아니 마니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만한 모델이다. 2011년 첫선을 보인 이후로 다양한 에르메스 스트랩을 선보이며 러더 밴드에도 완성도를 기하는 파르미지아니에서 뛰어난 착용감과 유연성이 돋보이는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을 올해 처음 소개한 것이다. 케이스부터 러그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첫 번째 러그에서 시작해 유려하게 이어지는 브레이슬릿은 기존 톤다 1950 컬렉션의 우아한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세공했다. 올해 SIHH에서 선보인 파르미지아니의 새로운 컬렉션은 국내에서 오는 5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10-1737 에디터 배미진



1 상층하고 우아한 톤다 1950 7분 디자인에 정교하게 가공한 스키텔론 무브먼트를 결합한 올레의 신제품이다. 왼쪽 제품이 여성용, 오른쪽 제품이 남성용이다. 2 부가티 컬래버레이션 10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버전 부가티 컬렉션. 3 톤다 1950을 위한 로즈 골드 소재의 새로운 브레이슬릿. 실제로 착용해보면 유연성과 정교함에 놀라게 된다. 불꽃감과 부드러움, 뛰어난 미-시성을 모두 갖췄다. 4 가운데 회중시계를 넣을 수 있는 토크 레핀 탁상시계를 만드는 과정. 5 운석을 다이얼 소재로 사용한 톤다 1950 메타오리트 에디션.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시계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이 파르미지아니의 정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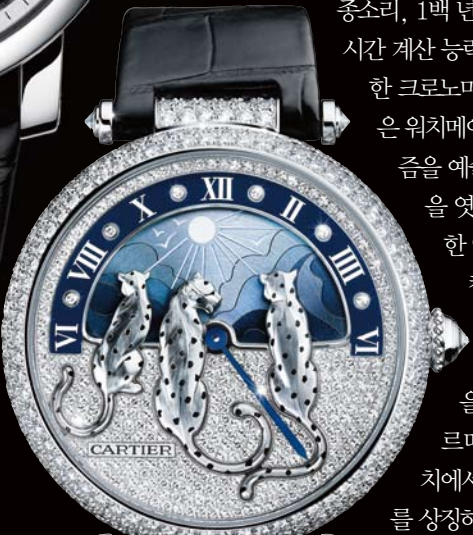
2015 SIHH

왜 스위스 제네바를 시계의 수도라고 부를까? 바로 세계 최고의 시계 박람회인 국제고급시계박람회 SIHH(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가 매년 1월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2015년은 SIHH 개최 25주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해다. 전자식 시계가 개발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예술적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사반세기 동안 지속·발전시켜왔다는 것은 시계 산업의 발전과 역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값비싼 시계를 러서리하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계를 하나의 예술로 여겨 스위스 문화유산으로 삼아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매년 개최되는 이 시계 페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스위스 환율 체제가 흔들리면서 박람회장엔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부스를 가득 채운 경이롭고 아름다운 위치 컬렉션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 또한 공존했다. 'Made in Switzerland'라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자부심과 시계 예술에 대한 헌신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2015년을 빛낼 새로운 주인공들을 만났다.

까르띠에 로몽드 드 까르띠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SIHH의 꽃이자 주축이라 불릴 만큼 까르띠에가 고급시계 박람회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매우 크다. 3개 브랜드의 부스를 합쳐놓은 규모의 가장 큰 독립된 섹션의 부스를 사용하고, 그 규모만큼이나 1백여 개의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는 것은 SIHH에 참여한 16개의 브랜드 중 까르띠에가 유일하다. 올해도 새로운 위치 컬렉션으로 시계 마니아들을 흥분시킨 까르띠에의 메인 위치는 까르띠에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계라는 기록을 남긴, 로몽드 드 까르띠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위치다. 이는 파인 워치메이킹의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컴플리케이션으로 꼽히는 미니 리퍼터, 퍼페추얼 캘린더, 플라이잉 투르바옹, 이 3개의 메카니즘을 5.49mm에 불과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탑재한 모델이다. 단 하나를 구현하기에도 어려운 기술임에도 맑고 풍부한 종소리, 1백 년간 오차 조정이 필요 없는 정확한 시간 계산 능력,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크로노미터 성능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은 워치메이커의 도전 정신과 시계의 메카니즘을 예술로 승화시킨 까르띠에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스키텔론화한 9406 MC 칼리버와 함께 세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부품의 상당수를 스키텔론 처리해 정교한 무브먼트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까르띠에다. 까르띠에의 신제품 위치에서 팬더를 빼놓을 수 없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티브인 팬더는 신비로운 낮

과 밤을 배경으로 한 데이 & 나이트 무브먼트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레드 팬더 데이 & 나이트 컴플리케이션 위치의 다이얼에는 한 가족을 이루듯 무리 지어 있는 우아하면서도 다소 귀여운 모습의 팬더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 최신 무브먼트 중 하나인 9916 MC 칼리버를 여성스럽고 그래픽적인 주얼리 위치로 재해석한 특별한 모델이다. 실물을 보기에 앞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낸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바이브레이팅 세팅 위치도 큰 이슈가 되었다. 바이브레이팅(vibrating, 떨림)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다이얼에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를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이도록 세팅해 손목이 움직일 때마다 찬란하고 우아하게 떨리는 효과를 선사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트램블링 세팅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파인 주얼리 세공의 끝이라 할 만큼 소수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고도의 세팅 기술. 이를 시계에 접목해 모던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바이브레이팅 세팅 위치는 주얼리 세공 기술에서 성숙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오른 까르띠에 주얼 공방의 위상을 드높이는 걸작이다.



1 부품의 상당수를 스키텔론 처리해 아름다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 할 수 있는 로몽드 드 까르띠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위치. 2 낮과 밤이 바뀌는 신비로운 하늘 아래 까르띠에의 상징인 팬더의 뒷모습이 인상적인 레드 팬더 데이 & 나이트 컴플리케이션 위치. 3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인상을 남긴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바이브레이팅 세팅 위치. 실물은 더욱 놀란다.



몽블랑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엑스 투르비용 미닛 크로노그래프 바스코 다 가마

최근 리치몬드 그룹에 합류하며 시계업계 태풍의 핵으로 불리는 몽블랑이 이번 SIHH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선보인 워치는 바로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엑스 투르비용 미닛 크로노그래프 바스코 다 가마 리미티드 에디션. 길고 긴 이름만큼 놀라운 역사와 기능을 담고 있는 시계로 일단 균형미가 느껴지는 다이얼의 아름다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포르투갈 출신의 뛰어난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의 진취적인 개척자 정신과 시간의 정확성을 연결해 몽블랑의 새로운 헤리티지인 크로노메트리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사진 속 워치는 이 컬렉션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바스코 다 가마의 배에 탑승했던 60명의 선원을 기리며 단 60개만 한정 생산했다. 44mm에 달하는 박력 넘치는 사이즈의 다이얼을 아름답게 수놓은 것은 남반구의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다크 블루 컬러의 에넵추린 소재다. 12시 방향에서 빛나는 별은 몽블랑의 스타로고 형태로 커다란 다이아몬드. 화룡점정은 바로 6시 방향에 위치한 정교한 엑스 투르비용. 이 모든 기능을 몽블랑의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칼리버 MB R230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다. 특히 모든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컬렉션은 르 로콜에 위치한 몽블랑 매뉴팩처를 떠나기 전에 엄격한 몽블랑 랩 테스트 500을 거치기에 더욱 완성도가 높다. 이 테스트는 조립과 미세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찾아내기 위한 검사로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 또 하나의 놀라운 다이얼 디자인을 선보인 모델은 빌레르 투르비용 실린드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Villeret Tourbillon Cylindrique Geospheres Vasco da Gama). 월드 타임 인디케이터에 원통형 투르비용을 더해 다이얼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워치의 복잡성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했다. 몽블랑 매뉴팩처 칼리버 MB M68.40의 중심에 1본 투르비용을 장착해 입체적인 형태를 완성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컬렉션은 치열한 기계식 시계업계에서 몽블랑이 고지를 점령하고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거 르쿨트르 듀오미터 스페르투르비용 문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필수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다.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낮과 밤의 변화로 오전, 오후를 판단할 수 있듯 과거엔 태양과 달의 변화,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시계 역사에서 우주는 가장 매력적인 탐구 대상이다. 예거 르쿨트르에도 우주는 매우 특별하다. 아무도 우주에 주목하지 않을 때도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 속에는 늘 우주가 있었고, 발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다이얼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다. 별의 움직임과 우주에 대한 아름다움을 몇 시즌에 걸쳐 재해석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브랜드도 드물 뿐만 아니

라, 우주에 대한 테마를 예거 르쿨트르만큼 잘 알고 있는 브랜드도 없다. 그 결과물은 이번 SIHH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듀오미터 스페르투르비용 문 워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2년 6개월마다 하루의 오차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 페이스와 달리 3천8백77년에 한 번 조정할 정도로 고도의 정확성을 선사하는 문페이스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시계다. 9시 방향에 2개의 축을 중심으로 20도 기울어진 형태로 회전하는 스페르투르비용 볼 수 있는데, 이는 약 23도로 기울어져 회전하는 지구의 자전축에서 영감을 받았다.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뛰어넘어 실제 우주를 다이얼에 담은 마스터 캘린더 워치도 주목할 만하다. 태양계의 천체에서 유래해 그 나이가 40여 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진귀한 운석을 다이얼에 사용한 것. 운석 절단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무늬를 그대로 실려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이 워치는 '순목 위의 작은 우주'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만큼 예거 르쿨트르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수작이다.

반클리프 아펠 까데나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한 까데나(Cadenas) 컬렉션은 SIHH에 등장한 모든 시계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환상적인 워치다. 최근 보기 드문 클래식한 주얼리 워치이기도 하다. 언제나 시적인 컬렉션으로 우아함을 노래하는 반클리프 아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까데나 워치는 1935년 첫선을 보였다. 고리 모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감정의 결속성을 의미하는데, 하이 주얼리의 아이콘인 지퍼 베크리스처펠 원저 공작부인에게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목 바로 위가 아닌 옆으로 경사진 다이얼 창으로 시간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여자를 위한 타임피스로서 태생적인 우아함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옐로 골드부터 고전적인 티버 스테이크 체인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버전, 손목을 감싸는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더한 컬렉션에 하이 주얼리 버전까지 9개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최근 반클리프 아펠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성 워치인 참 컬렉션에 플라워 부케의 아름다움을 더한 참 엑스트라오다네리 랑가귀 테 플레르는 반클리프 아펠의 정수를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머티오브릴 다이얼에 2차원, 3차원적인 미니어처 페인팅과 카보숑에 나뭇잎 기법 같은 다양한 세공 기술을 이용해 장식했다. 볼륨감과 광택, 빛의 유희를 한 다발의 부케로 표현한 참 컬렉션 중 아래 사진 속의 참 엑스트라오다네리 데저는 '젊은 날의 사랑'을 의미하는 라일락 모티브로 장식했고, 베젤의 핑크 사파이어와 바일렛 사파이어의 불규칙한 그리테이션이 화려함을 더한다.

1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 몽블랑의 SHH 부스. 2 올해 새롭게 몽블랑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된 모나코 공주 샬리 카사리니. 3, 4 시계 속에 드라이브를 맡고 있는 몽블랑의 바스코 다 가마 컬렉션. 5 지구의 자전축에서 영감을 받아 20도 기울어진 형태로 회전하는 스페르투르비용이 핵심 모티브인 예거 르쿨트르 듀오미터 스페르투르비용 문. 6 진짜운석을 다이얼에 새긴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캘린더 워치. 7 독보적인 우아함을 선보인 반클리프 아펠의 까데나 컬렉션. 화이트 골드에 스테이크 체인, 다이아몬드를 새긴 버전이다. 8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참 컬렉션 워치를 장인 정신으로 재해석한 참 엑스트라오다네리 데저.



바쉐론 콘스탄틴 하모니 필시미터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현존하는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바쉐론 콘스탄틴이 창립 2백60주년을 맞이해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계'라는 국내의 속설이 생각날 만한 재미난 시계를 출시했다. 탄생 2백6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선보인 하모니 컬렉션 중 하나로, 맥박을 측정하는 기능인 필시미터를 장착한 하모니 필시미터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가 그것이다. 이는 1928년에 출시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 오리지널 필시미터 크로노그래프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로, 오리지널 모델과 의료용 시계에 대한 헌사를 바치는 의미의 기념비적인 타임피스다. 쿼터 형태의 핑크 골드 케이스로 기존 오리지널 모델을 모던하게 재해석했으며 7년간의 연구와 개발 과정 끝에 탄생한 새로운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3300을 탑재해 최신 기술력까지 모두 갖췄다. 이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강점은 다이내믹한 크로노그래프 액티베이션 시스템을 사용해 오리지널 45분 카운터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메커니즘은 푸셔를 강하게 누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로운 무브먼트에는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고유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기어와 캠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옆면의 커플링 클리치에는 마찰 저항 테크닉을 적용해 크로노그래프의 세컨드 핸즈가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 갑자기 움직이는 현상을 막아주고, 슬라이딩 푸셔가 있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다이얼 바깥쪽 테두리에는 30미터 스케일로 맥박을 측정하는 필시미터 기능을 레드 컬러로 표시했고,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와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션을 함께 배치했다. 또 탄생 2백60주년을 기념해 밸런스 쿼크에 최초의 포켓 워치인 플레쉬업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을 핸드인그레이트잉으로 새겨 넣어 미학적 가치를 더했다.

랑에 온트 죄네 랑에 1

독일 시계 브랜드를 대표하고 SIHH 박람회에서도 클래식 워치의 수장이자 할 수 있는 랑에 온트 죄네에서 올해 브랜드의 시그니처 워치인 랑에 1에 새로운 무브먼트를 장착해 선보였다. 1994년 첫선을 보이며 그 이름을 알렸던 랑에 1은 수많은 시계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은 워치로, 올해 새롭게 적용한 랑에의 50번째 브랜드 무브먼트 칼리버 L 121.1, 은 클래식한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다. 대형 날짜 창은 점핑 기술을 적용해 정확한 자정에 날짜를 변경하고, 자체 제작한 프리-스프링 헤어스프링을 장착했으며 7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까지 탑재했다. 물론 무브먼트의 기계적인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많은 이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빅 테이트 캘린더로 대표되는 랑에 1의 다이얼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해 까다로운 기준을 지닌 브랜드의 고집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선보인 또 하나의 역작은 랑에 온트 죄네 매뉴팩처 칼리버 L043.5를 장착한 자이트베르크 컬렉션. 브랜드 최초로 10본 단위로 차임이 울리는 데시멀 미닛 리피터와 점핑 플래이트 디스플레이를 결합해 다이얼이 시간을 표시하는 정확한 순간에 차임이 울린다. 실제로 SIHH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디스크가 움직이는 순간 미닛 리피터가 울리는 소리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 설정한 시간에 정확히 울리는 맑고 선명한 벨 소리는 랑에 온트 죄네가 정확성과 완성도를 위해 섬세한 과정을 쌓아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IWC 포르투기저 에뉴얼 캘린더

빅 사이즈 손목시계의 시조로 이름을 알리며 출시 75주년을 맞이한 포르투기저는 IWC의 워치 중 가장 오래되고 가

장 많이 팔린 대표작이다. 시계를 잘 모르는 남성에게도 매력적인 만큼 세련된 디자인의 포르투기저는 남자들이 명품 시계를 살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워치 리스트 중 하나다. IWC가 올해를 '포르투기저의 해'로 선언하고 기존의 포르투기저가 아닌 포르투기저라는 이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만큼 다채로운 디자인과 기능의 포르투기저 라인을 만날 수 있다. 기존 라인에 에뉴얼 캘린더 워치와 디지털 빅 테이트를 장착한 페페추얼 캘린더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추가하면서 비로소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에뉴얼 캘린더는 12시 방향에 위치한 3개의 반원 모양 개별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해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 1년에 한 번 2월 말 조정 기간에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정 버튼을 장착하는 데시멀 크라운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고유의 심플함을 손상시키지 않은 점도 눈에여겨볼 만하다. 오리지널 모델에는 6시 방향에 위치했던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을 9시 방향으로 이동해 배치했으며, 맞은편에는 7-days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52850 칼리버를 장착해 에뉴얼 캘린더의 작동을 최적화한 것 역시 IWC의 탄탄한 기술력과 저력을 다스릴 수 있는 핵심 요소다. IWC의 또 다른 주력 신제품은 날짜와 월을 표시하는 디지털 빅 테이트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 디지털 데이트 먼스다. 포르투기저 75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25개의 한정판 플래티넘 모델과 두 종류의 75개의 한정판 레드 골드 모델도 선보인다. 날짜와 월을 표시하는 단순하고 가독성이 높은 대형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페페추얼 캘린더, 윤년 디스플레이, 플라이백 기능을 갖춘 크로노그래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티버 풀 오토매틱 시스템과 쿼크 액션 스위치를 장착한 칼리버 89801까지 IWC의 매뉴팩처 기술을 45mm의 케이스에 집약했다. 포르투기저 컬렉션 출시 75주년을 기념하는 시계답게 아치형 전면 글라스와 산토리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장착하고 매력적인 칼리버 디자인을 더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1 1928년에 출시된 바쉐론 콘스탄틴 하모니 오리지널 모델. 2 창립 2백60주년 기념 에디션을 선보인 바쉐론 콘스탄틴의 부스. 3 의료용 시계에 대한 헌사를 하는 의미의 바쉐론 콘스탄틴 하모니 필시미터 모노푸셔 워치.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시미터가 눈에 띈다. 4 새로운 무브먼트를 탑재한 랑에 1. 5 시간을 읽는 기술에 가장 충실하고, 확인하기 쉬운 데시멀 미닛 리피터를 장착한 랑에 온트 죄네의 자이트베르크 미닛 리피터. 6 3개의 반원 모양 디지털 빅 테이트를 장착한 IWC 포르투기저 에뉴얼 캘린더 컴플리케이션 워치. 7 포르투기저 탄생 75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IWC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 디지털 데이트 먼스 워치.





피아제 알티플라노 크로노그래프
 매년 세계 기록을 갱신하며 울트라 신 위치의 새로운 지평을 연 피아제가 과연 올해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계를 선보일까? 많은 브랜드들이 얇은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얇으면서도 견고함과 정확성을 모두 갖추기란 기계적으로 매우 어렵다. 게다가 수백 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구동해야 하는 컴플리케이션 기능까지 더하려면 시계의 두께는 더욱 두꺼워지기 마련. 하지만 올해 피아제는 이런 한계를 깨고 울트라 신 무브먼트의 강자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컴플리케이션 위치 중 4.65mm 두께의 무브먼트, 8.24mm의 케이스로 가장 얇은 알티플라노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인 것. 이는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컴플리케이션 위치 중 가장 얇은 두께다. 울트라 신 위치에 대한 집념으로 완성한 이 시계는 5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6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3시 방향의 30분 카운터, 9시 방향의 세컨드 타임 존, 그리고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플라이백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알티플라노는 크로노그래프 모델 이외에도 컬렉션 최초로 골드 브레이슬릿을 함께 선보인다. 폴링싱 처리 혹은 보석 세팅을 한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구성했다. 워치메이커이자 주얼러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트레이디션 오벌 시계도 감탄을 자아내는 컬렉션 중 하나. 이는 1960~70년대의 전설적인 빈티지 시계에서 영감을 받았다.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골드 브레이슬릿은 피아제만의 뛰어난 금세공 기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궁중(palace) 마감이라 불리는 세공법을 적용해 화려하고 독특한 질감이 돋보인다.

로저 드뷔 아스트랄 스키텔론
 올해 SIHH에서 가장 과감하고 결단적인 부스를 선보인 로저 드뷔는 브랜드가 지닌 예술적인 영감을 극대화한 아스트랄 스키텔론 컬렉션을 선보였다. 박람회 첫날이 놀라운 부스를 소개하는 자리에 시계 장인 로저 드뷔가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이번 컬렉션은 매우 의미가 깊다. 현대적이고 그래픽적인 스키텔론 위치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로저 드뷔의 매력을 살린 스키텔론 컬렉션을 테크니컬 스키텔론, 오토매틱 스키텔론, 크리에이티브 스키텔론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아스트랄 스키텔론 컬렉션이라는 테마로 집대성한 것이다. 독창적이고 모던한 스키텔론을 제네바 인증이라는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 정신으로 살린 이번 컬렉션의 주인공은 단연 엑스칼리버 스페이더 스키텔론 더블 플라이



1 크로노그래프 컴플리케이션 위치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피아제 알티플라노 크로노그래프. 2 100% 수공으로 완성된 독특한 질감의 브레이슬릿이 핵심인 피아제 트레이디션 오벌 위치. 3 피아제의 시그니처 워치인 알티플라노는 컴플렉스 최초로 골드 브레이슬릿 버전을 함께 선보인다. 4 워킹을 앞둔 카를에게 추천하는 보메 메르시에 클래식 마 카를 위치. 5 로저 드뷔의 매니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스키텔론에서 영감을 받은 부스 구조물. 6 2개의 플라이백 투르비용을 장착한 로저 드뷔 엑스칼리버 스페이더 스키텔론 더블 플라이백 투르비용. 7 화려한 컬러의 아이비가 눈길을 사로잡는 엑스칼리버 브로셀리안드.



투르비용이다. 무브먼트만이 아니라 케이스, 플랜지, 웬즈에도 스키텔론 기법을 적용해 다층적인 스키텔론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데 세심한 세공 기술은 물론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브먼트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위치다. 47mm의 대담한 케이스는 티타늄과 블랙 DLC 티타늄을 스키텔론 처리했고, 선명한 레드 컬러 알루미늄 칸테이너와 크라운을 매치해 화려함을 더했다. 분당 1회 회전하는 더블 플라이 투르비용을 스키텔론 다이얼 위에 배치한 모습은 정교함 그 자체다. 제네바에서 완성한 수공 무브먼트 RD01SQ를 탑재했으며 1백88개 한정 에디션이다. 스키텔론 무브먼트 위에 컬러풀한 아이비 장식인 엑스칼리버 브로셀리안드 모델도 눈길을 끌었는데, 다이아몬드와 플라이 투르비용, 딥 루비 악어 가죽 스트랩까지 더해 로저 드뷔 특유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게 완성했다. 28개 한정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보메 메르시에 클래식 마 오토매틱 40mm
 생애 첫 럭셔리 위치를 구입한다면 그것은 단연 보메 메르시에일 것이다. 제네바 출마 인증을 획득할 만큼 하이엔드 위치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스위스 메이더 시계를, 그것도 수천만원이 아닌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보메 메르시에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다. 올해 젊은 타겟층을 사로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보메 메르시에에는 대표 컬렉션인 클래식 마를 주역으로 다양한 버전의 클래식 마 남성 위치와 여성을 위한 레이디 클래식 마를 선보였다. 스틸 또는 투톤 버전의 클래식 마 남성 위치는 40mm의 새로운 사이즈, 선명한 라인과 3시 방향의 오픈 데이터 디스플레이로 새롭게 디자인한 다이얼로 기존 오리지널 모델을 재해석해 출시했다. 아이코닉한 직선 모양의 기요세 데크와 블루 스틸 웬즈가 포인트로,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를 통해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와 하우스 로고인 그리스 문자 파이(phi)가 새겨진 로터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36.5mm 사이즈로 선보이는 여섯 가지 레이디 클래식 마 위치를 출시하면서 카를 위치 시장의 새로운 루키로 부상했다. 레이디 클래식 마는 남성용과 마찬가지로 스틸 또는 투톤으로 선보이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거나 문패이즈를 장착한 특별한 디자인도 만날 수 있다.

파네라이 루미노르 쉐머저를 1950 카보테크
 www.paneristi.com에 접속하면 스스로를 '파네라스티라' 칭하며 파네라이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는 전 세계 파네라이 마니아들을 만날 수 있다. 명품 시계에서는 드물게 열성적인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파네라이는 스페셜 에디션을 제외하고는 대표 컬렉션인 라미오미르, 루미노르, 이 두 가지 시계만 고수한다. 매년 소재, 시계 스트랩, 무브먼트 기능에만 약간의 변화를 주는데도 마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파네라이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때문이다. 해군 특공대에 납품한 군용 시계에서 출발해 특유의 파워풀한 이미지를 지닌 루미노르 쉐머저를 1950은 어쩌면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파네라이 시계 제작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복합 소재인 카보테크를 적용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압도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거친 무늬의 무광 블랙 컬러 케이스는 루미노르의 강렬함을 더욱 극대화하는 핵심 모티프다. 가볍고 외부 자극에 강하며 부식이 되지 않는 카보테크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과거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눈금 표시와 회전 베젤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P9000 오토매틱 칼리버를 탑재했으며 방수 기능을 지원하는 스크루 인 케이스 백은 블랙 티타늄으로 제작해 특별함을 더했다. 더불어 카보테크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는 러버 스트랩에는 파네라이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의 OP 로고를 새겨 루미노르 모델 중 가장 파워풀한 면모를 자아낸다. 독특한 개성과 가장 순수한 파네라이의 정체성을 갖춘 루미노르 위치도 만날 수 있다. 브러시드 티타늄 소재의 베젤을 장착한 루미노르 쉐머저를 1950 3 데이즈 크로노 플라이백 오토매틱 티타니오가 바로 그 모델. 크로노그래프 바늘을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플라이백 기능을 탑재해 파네라이 위치 컬렉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1993년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은 럭셔리 스포츠 위치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올해 역시 이 전설적인 컬렉션에 셀프와인딩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직경 42mm의 박력 넘치는 다이얼은 1972년 등장한 오리지널 옥타곤 로열 오크의 외형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여기에 내부 케이스를 연철 소재로 제작해 자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고안했다. 이제는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상징이 되어 버린 8개의 스크루로 고정된 베젤은 허드 게스킷과 결합해 뛰어난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 이미 2010년 카본과 세라믹을 통한 제작된 케이스를 장착한 최초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인 바 있는데, 4년이 지난 올해 최신펬와인딩 칼리버 2897을 장착한 새로운 하이엔드 컬렉션을 출시한 것. 3백35개의 부품은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했을 뿐 아니라 1차 시험 조립이 끝난 후 다시 분해해 다시 정밀 세척을 거쳐 최종 조립하기에 신뢰도가 더욱 높다. 0.45g에 불과한 투르비용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워치메이킹 장인이 꼬박 3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더욱 소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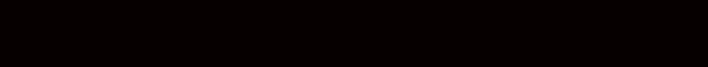
리처드 밀 RM 19-02
 진지함으로 가득 찬 SIHH 전시에 다채로움을 부여하는 리처드 밀. 하이 소사이어티의 까다로운 취향을 만족시키는 컬트 브랜드이자 독보적인 완성도를 자랑하는 리처드 밀은 무브먼트의 이름을 제품 이름에 그대로 적용할 만큼 기술적으로 뛰어

나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RM 19-02 투르비용 플라이 위치는 가장 클래식한 스위스 위치의 형태, 자연을 소재로 기계 예술을 표현하는 고전적인 기법을 담고 있다. 이 컬렉션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매일 다른 꽃으로 장식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관람객들과 포토 타임을 갖기도 했는데, 플라이 투르비용을 목련꽃이 감싸고 있는 형태의 움직임 그 자체가 드라마틱한 자태를 드러내 SIHH에서 리처드 밀이 독보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다섯 송이의 목련꽃이 우아하게 서서히 열리면 투르비용이 위쪽으로 1mm 올라오며 일체감이 도드라진다. 전 세계 한정 생산된 매그놀리아 컬렉션의 우아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리처드 밀은 꽃잎과 연결된 5개 레버의 동작과 투르비용을 들어올리는 장치의 동력은 별개의 세컨드 바렐에서 가져오도록 고안했다. 고전적인 시계 전통 예술을 재현한 세밀한 예술품인 RM 19-02는 전 세계 30개 한정점으로 선보인다.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은 하이 주얼리 피스 RM 51-02 투르비용 다이아몬드 트윈스터는 나선형의 회오리에서 영감을 받아 드라마틱한 순간을 창조했다. 다이아몬드와 블랙 오크스의 베이스 플레이트는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한 조화를 보여주고, 6시 방향의 투르비용에서 마치 회오리처럼 발산되는 14개의 다이아몬드 라인인 프랑스로 '은하수의 소용돌이'를 의미하는 투르비용의 본질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프리스프링 밸런스, PVD 처리한 5등급 티타늄 소재 스키텔론 브리지, 수공으로 마무리한 완벽한 무브먼트 가공 기술까지 리처드 밀만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제품 역시 30개 한정 생산한다.

파르미지아니 툰다 1950 스키텔론
 프라이빗한 부스에 우아한 컬렉션을 가득 채워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한 파르미지아니. 그중 브랜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툰다 1950 스키텔론 컬렉션은 수공으로 완성된 뛰어난 무브먼트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신제품이다. 굵다터기 없는 기존 툰다 1950의 매력을 아는지는 이들에게는 과격으로 느껴질 만큼 매력적인 제품으로 메인 플레이트 전체를 오픈워크 처리해 정교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1백27개로 구성된 인하우스 무브먼트 PF 705를 장착했으며 여전히 손으로 섬세하게 모든 부품을 만드는 브랜드인 만큼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소장 가치가 높다. 스키텔론 컬렉션은 여성을 위한 독특한 버전도 함께 선보이는데, 무브먼트를 오픈워크 처리한 것은 동일하지만 반투명한 글라스로 무브먼트를 덮어 스키텔론 무브먼트 전체가 보이지 않고 마치 안개에 싸인 듯 신비롭게 은은히 비춘다.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했지만 글라스의 소재를 달리해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니게 된 것. 이렇듯 세심하게 변형된 시계를 선보이는 순간이, 시계를 여전히 예술품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계 장인의 미철 파르미지아니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파르미지아니는 이 밖에도 부가티 탄생 10주년 컬렉션, 세계적인 유리공예 브랜드인 라리크와 함께 회중시계와 탁상시계를 결합한 토릭 레인을 선보여 독특한 시계 예술의 세계를 펼쳤다. **SIH**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제네바 현지 취재)



1 가장 순수한 파네라이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파네라이 루미노르 쉐머저를 1950 3 데이즈 크로노 플라이백 오토매틱 티타니오. 2 압도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거친 무늬의 무광 블랙 컬러 케이스가 파네라이를 열광케 하는 파네라이 루미노르 쉐머저를 1950 카보테크. 3 투르비용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이아몬드의 소용돌이가 아름다운 리처드 밀의 RM 51-02 투르비용 다이아몬드 트윈스터 위치. 4 목련의 꽃잎 안에 플라이백 투르비용을 품고 있는 RM 19-02 투르비용 플라이 위치. 꽃잎이 닫혀 있는 모습이다. 5 남성이와 세컨드, 기계적 완성도와 클래식한 매력까지 모두 갖춘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6 클래식한 디자인에 스키텔론 무브먼트를 매치한 파르미지아니 툰다 1950 스키텔론 위치.



Spring, Actually

브랜드마다 고유의 개성을 담은 패턴의 향연,
그리고 계절의 경계를 허문 소재의 활용까지,
올 봄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hotographed by yoo young kyu



오가드 패턴의 블랙
재킷과 팬츠, 크리스탈
골드 앵글 모두 **텐디**.



프린트 장식이 화이트 드레스
샬린느, 블랙 &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 슈츠 **칼로에**,
볼드한 골드 앵글 **토조**.



핀칭 디테일의 화이트 컬러
하이넥 톱, 버건디 & 네이비
스트라이프 패턴의 페이턴트
랩 스카트, 가장자리에 모티프의
볼드한 아이링 모두 루이비통.

블랙 & 화이트 애니멀 패턴의
퍼 코트, 레트로 패턴 셔츠, 옐로
V넥 니트 베스트, 가죽 디테일의
레트로 패턴 스카트, 컬러 블록
나사스, 자카드 스트랩 슈즈,
크리스탈 아이링,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모두 프라다.





살바 카디건, 비즈 장식
드레스, 블랙 벨트 모두 보테가
베네타, 비이지 스트랩 슈즈
링방, 크리스탈 드롭형 이어링
피버리쉬.



레더링 패턴의 블루
트렌치코트, 데님 크롭트
재킷, 블루 시스루 드레스 모두
버버리 프로덕션, 블루 & 그린
스트랩 슈즈 지미후.



레드 & 화이트 퍼 베스트,
화이트 드레스, 브라운 벨트,
브라운 스웨이드 부츠,
브라운 골드 컬러 브라운 슈트
모두 구찌.

가하릭적 패턴의 스트라이프
재킷과 스커트, 레드 셔츠
모두 에르메스.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헤어 박선호
메이크업 박이화
모델 강승현
어시스턴트 김혜민
스타일리스트 재한석
에디터 권유진

프라다 02-3218-5331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지미주 02-3443-9469
앤디 02-2056-9023
에르메스 02-544-7722
보태가 베레타 02-3438-7682
파버라쉬 02-790-3041
루이 비통 02-3432-1854
셀린느 02-3440-1147
칼로에 02-6905-3670
토즈 02-3438-6008
구찌 1577-1921
랑방 02-6905-3582

new Elegance

따사로운 날씨, 특별한 웨딩,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장 멋지고 여성스러운 룩은 바로 랑방컬렉션으로 완성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랑방컬렉션.

웨딩 파티를 사로잡다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스러움 속에 랑방의 감성을 담은 랑방컬렉션(LANVIN COLLECTION)의 2015 S/S 컬렉션은 웨딩 파티에 초대된 사랑스러운 여성들의 매력적이고 럭셔리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모던한 실루엣과 감성적인 무드, 우아하면서도 예지가 느껴지는 랑방컬렉션의 다양한 룩을 소개한다.

Neutral chic

(왼쪽) 신부의 애프터 파티 룩으로도, 웨딩 파티에 초대된 하객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 실루엣이 부드러운 스킨 톤 블라우스에 여성스러운 드레이핑이 돋보이는 화이트 스커트를 더했다. 신축성이 뛰어난 울매를 돋보이게 하여 진주 네크리스로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모두 랑방컬렉션.

(오른쪽)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원한다면 트렌치 코트가 필수다. 귀족적인 화이트 원피스에 평범한 소재 대신 형태감이 느껴지는 자카드 코트 소재의 트렌치 코트를 매치했다. 랑방컬렉션 특유의 볼드한 네크리스를 매치하면 더욱 매력적이다. 모두 랑방컬렉션.



Pink rose

라벤 소재의 핑크 원피스는 몸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구조적인 드레이핑이 가장 큰 매력이다. 블랙 실크로 스와로브스키 보석을 엮은 화려한 네크리스는 스타일에 포인트가 되어준다. 파이톤 소재의 미니 백과 뉴트럴 컬러 하이힐은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모두 랑방컬렉션.



Romantic look

(왼쪽) 랑방컬렉션의 시그니처인 자연스럽고 럭셔리한 실루엣의 실크 원피스. 소매의 팬칭 디테일 아래 피부가 드러나 반전 있는 애프터 드레스로도 손색없다. 블랙 패턴의 스커터 백은 소장가치가 높다. (오른쪽) 단아한 느낌을 지닌 구조적인 실루엣의 코튼 소재 원피스. 양 끝을 진주를 다한 브레이슬릿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양가죽 클라치와 파이톤 패턴의 스타레토 힐은 어떤 웨딩 룩에도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다. 모두 랑방컬렉션. 문의 02-3416-4396(충담 예비뉴점)

dynamic Luxury

스포츠 웨어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가?
사진 속 우아하고 클래식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테크니컬 아우터와 액세서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일상에서는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는 이 룩은
랑방의 독보적인 색채를 담은 럭셔리
시티 웨어, 랑방스포츠 제품이다.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루키,
랑방스포츠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손쉽게 탈착 가능한 후드가 있어 TPO에
맞게 다양한 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루
컬러의 테크니컬 트랜치코트. 방수 & 방풍
기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소매 아래에
타공 기법을 더한 소재를 적용해 뛰어난
통풍력을 자랑한다. 95만원 랑방스포츠.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련된 블랙 & 그레이 톤의 배색이 멋스러운
메시 소재 투웨이 크로스백, 쇼퍼 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42만원.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빛에 반사되는 헬딩 디테일을 더한 헬딩 디테일 밀리터리
캡 18만원.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하며 탈착 가능한 스노 스커트가 있어
활용도가 높은 메시 소재 블랙 아우터 6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 랑방스포츠

랑방의 고유한 패션 철학과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탄생시킨 랑
방스포츠는 랑방의 독보적인 색채와 패턴에 실용성을 더한 럭셔
리 시티 웨어다. 이는 감각적인 두 가지 라인으로 전개하는데, 하
나는 아반 애슬릿 라인으로, 도시 생활에 필요한 생활 방수와 방
풍 기능을 강화했고 일상생활에서 즐겨 입기 좋은 디자인으로 이
뤄져 있다. 또 다른 라인인 다이너믹 퍼포머는 아반 애슬릿 라인
보다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
다. 랑방스포츠의 2015년 봄·여름을 이끌어갈 스포츠 테마는
'러닝(running)', 하이테크(high-tech, 고도의 기술력), 라이
트니스(lightness, 경량성), 스피드(speed, 속도감) 등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가볍고 활동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을 위해 타
공 기법을 기미한 소재를 메인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아반 컬렉션
의 중요 포인트다.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하다

랑방스포츠의 모든 의류는 특수 마감재를 사용해 완벽한 방수를
가능케 하는 심 실링 기법을 활용한다. 여기에 충전제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헬딩 기법을 더해 최고 수준의 봉제 기술을 적용했
다. 이번 시즌에 선보이는 하이테크 아우터는 랑방스포츠의 기술
력을 응집해 최상의 아웃도어 룩을 선사한다. 무릎 선까지 내려
오는 테크니컬 아우터는 뛰어난 방수, 방풍 기능을 겸비했고 주
머니가 여러 개 있어 수납 또한 용이하다. 라이트 메시 접퍼도 추
천 이이템인데, 입을 때 매우 가볍고 환할 때에는 탈착 가능한
스노 스커트를 활용해 바람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 독특한 메시
소재로 만든 투웨이 크로스백은 세련된 블랙과 그레이 톤을 배색
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짧은 핸들 부분만 들어 쇼퍼 백으로 사용
하거나 스트랩을 연결하면 반으로 접으면서 색다른 연출이 가능
하다. 비브람 솔을 사용해 활동성을 높인 시티 러닝화 역시 생활
방수가 가능한 기능성 신발로, 통풍성이 좋은 메시 소재를 접목
해 실용적이고 무게 또한 가볍다. 이처럼 일상에서는 물론 아웃
도어 활동 시에도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해줄 랑방
스포츠와 함께 도심 속 활기찬 라이프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랑방스포츠의 제품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252(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02-772-3481(롯데백화점 본점) 에디터 권유진



허프까지 내려오는 편안한 길이감의
테크니컬 아우터. 방수 & 방풍 기능을
갖춘 접퍼로 멀티 포켓이 있어 실용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멋스럽다. 80만원 랑방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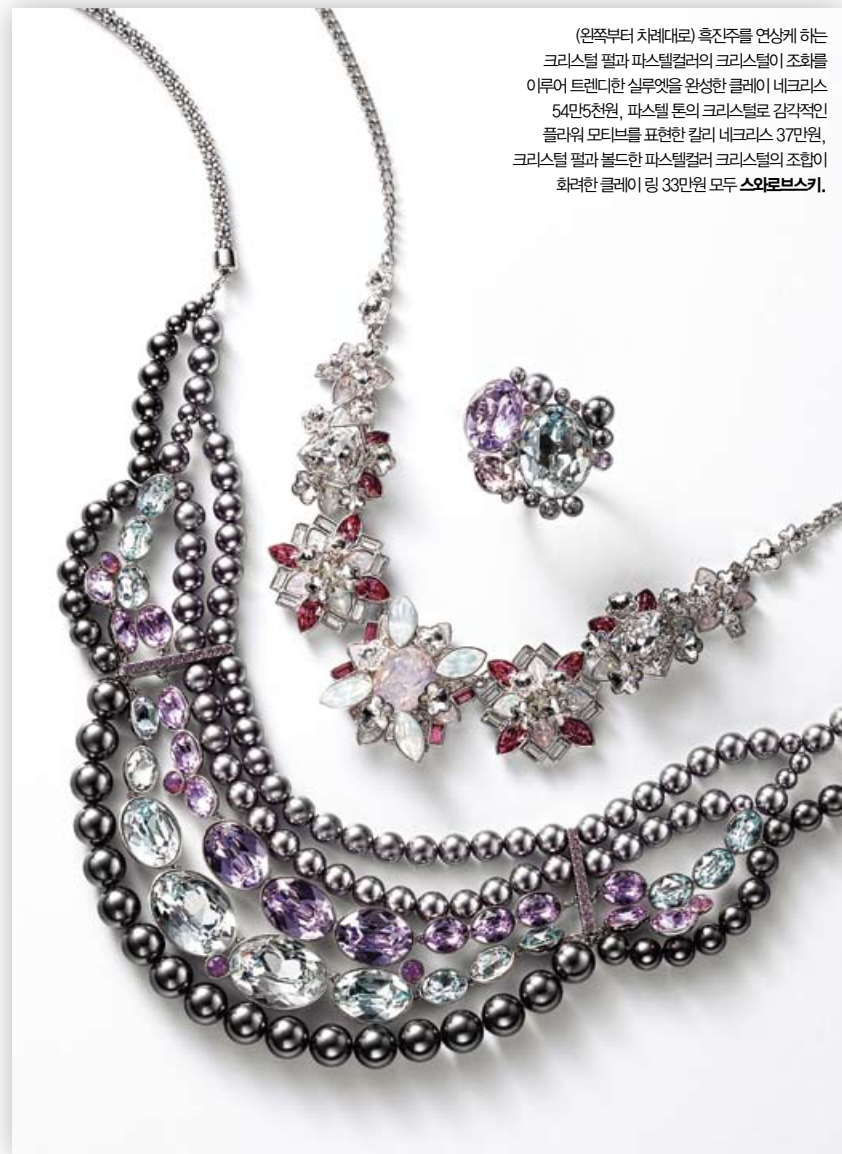
세련된 블랙 & 그레이 톤의 배색이 멋스러운
메시 소재 투웨이 크로스백, 쇼퍼 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42만원.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트한 블랙 메시 소재가 세련되고
유니크한 블랙 더블 크로스백, 노트백 수납도 가능한 만큼 수납공간이
넉넉한 것이 특징이다. 45만원. 아웃도어 슈즈에 주로 사용하는 비브람 솔을
사용해 활동성을 높인 메시 소재 시티 러닝화, 3M 반사 포인트와 뒤쪽의 골드
배색이 포인트다. 45만원. 짧은 기장의 테크니컬 아우터로 특유의 터치감이
느껴지는 헬딩 포켓 디테일이 돋보인다. 8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Romantic flower
봄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화려한 네크리스와 파스텔 톤의 볼드한 링이 그녀의 환한 웃음과 어우러져 만개한 봄꽃을 연상시킨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흑진주를 연상케 하는 크리스탈 필라 파스텔컬러의 크리스탈이 조화를 이루어 트렌디한 실루엣을 완성한 클레이 네크리스 54만5천원, 파스텔 톤의 크리스탈로 감각적인 플라워 모티브를 표현한 클리 네크리스 37만원, 크리스탈 필라 볼드한 파스텔컬러 크리스탈의 조합이 화려한 클레이 링 33만원 모두 **스외로브스키**.

포토그래피 안주영(인물), 박민주(제품)

Spring blossom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의 정원, 로맨틱한 무드를 자아내는 스와로브스키의 2015 S/S 주얼리 컬렉션과 배우 한예슬이 그려낸, 순수하고 화사한 아름다움.



Lovely moment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크리스탈과 진주의 조화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수줍고도 설렌다. 진주와 크리스탈이 어우러진 이어링과 여러 개의 크리스탈 링을 레이어드해 사랑스러움을 어필할 것. 에디터 권유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비 모티브의 링과 진주 링, 크리스탈 링 3개가 한 세트인 큐트 링 21만5천원, 화이트 크리스탈 필라 크리스탈 볼의 매치가 여성스러운 캐노피 이어링 14만5천원, 화이트 크리스탈 필라 화려한 크리스탈 볼의 조화가 감각적인 캐노피 네크리스 15만5천원 모두 **스외로브스키**, 문의 1661-9060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는 2월의 카니발 기간에 '일 발로 델 도제'라는 가면무도회가 열리는데, 해마다 딱 하룻밤 펼쳐지는 행사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평생에 단 한 번만 열리고 다시는 복제되지 않는 무도회, 그것도 제인 버킨이나 그레이스 켈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인물들이 고혹적인 차림새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 것처럼 꿈 같은 행사들이 유럽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는데, 춤과 음악, 미식의 궁극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당시 선택받은 무도회 게스트들이 의상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공들인 요소는 타인의 뇌리 속에 펼쳐내지 못할 존재감을 남길 만한 진귀한 보석이었다. 희소가치가 높은 하이 주얼리의 향연이 벌어질 것이다. 1세기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하이 주얼리 워치 메이저인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바로 이처럼 매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볼드 레전드(Bals de Légende)'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경이로웠다는 5대 가장무도회에서 영감을 받아 빛낸 90여 점으로 이뤄진 컬렉션이다.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아 절할 만큼 미려한 컬렉션의 일부가 공개됐는데, 반클리프 아펠 글로벌 CEO 니콜라 보스의 표현대로 '황홀하다(enchanting)'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 게다가 세상에 하나씩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작품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2백여 명의 게스트에게서 때로는 설렘을, 때로는 감탄 어린 탄성을 자아냈을 만큼 예술적인 오라(aura)가 특별한 '무도회 컬렉션'을 공유한다.

베니스, 센추리 볼(The Century Ball, 1951년 9월 3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 컬렉터 샤를 드 베스트기(Charles de Beistegui)가 베니스의 팔라초 라비아(Palazzo Labia)에서 개최한 가면무도회. 베니스국제영화제와 우연하게 시기가 일치해 20세기 사교계 행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무도회로 알려져 있다. 이 무도회를 모티브로 한 대표작으로는 15.81캐럿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가 돋보이는 '시누아즈리 세트(The Chinoiserie Set)'가 꼽힌다. 18세기 중반 유럽에서 유행한 중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유럽 예술 운동인 시누아즈리에서 따 이름이다. 중국의 전통 자기를 재현하려고 사파이어를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표현한 목걸이가 눈에 띈다. 촘촘히 엮은 사보라이트 가넷이 눈길을 절로 잡아끄는 '루 데코 세트(The Loup Decor Set)'는 가면의 도시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베니스 건축물을 떠올리게 한다"며 니콜라 보스 CEO가 개인적으로 애정을 지니고 있다는 '아르카타 세트(The Arcata Set)' 역시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의 대조미가 근사한 작품이다.

파리, 오리엔탈 볼(The Oriental Ball, 1969년 12월 5일)

이 무도회 초대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거리였을 정도로 알렉시스 드 르데(Alexis de Rede) 남작이 개최한 오리엔탈 볼은 화제였다. 무도회 장소는 파리 랑베르 호텔. 햇빛을 든 아프리카 경비병 동상이 계단을 따라 층층마다 자리해 저마다 오리엔탈풍으로 단장하고 나타난 손님들을 무도회장으로 향하는 길로 이끄는 안내인 역할을 했다. 1960년대 음악의 스타 브리짓 바르도, 초현실주의 대가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해 4백여 명의 게스트가 모여든 이날 밤 무도회의 주제는 '천일야화'. 사교계에서 우아한 스타일로 명성이 자자했다는 로스차일드 남작부인은 태국 전통 의상 차크리를 입고 나타났는데, 자못 역동적인 디자인에 색상의 조화가 경쾌한 '맘모 오 드레곤 데코 클럽(The Femme au Dragon

born to be Legends

반클리프 아펠은 프랑스 보석 가문 자제들의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가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탄생한 브랜드로 유명하다. 그런데 '사랑의 전설을 예술로 승화했다'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작품성에 한걸 더 주목해야 할 브랜드가 아닐까 싶다. 소재의 창의성과 극강의 장인 정신으로 빛어낸 완성도가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기 때문. 지난 2월 초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린 '볼드 레전드' 행사는 그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 20세기 유럽의 전설적인 무도회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동명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어째서 파리에서만 물론이고 뉴욕인들이 이 브랜드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공감케 하는 환상적인 예술혼을 품고 있었다.

Decor Clip)'은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 중 하나다. 알알이 박힌 고운 사파이어로 단장한 여인을 감싸고 있는 용의 뱀사가 레드 스피넬의 은근한 반짝거림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 중국 황실을 연상케 하는 '오페라 차노아 이어링(The Opéra Chinois Earrings)'도 핑크, 주황, 보라 등이 어우러져 생동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페리에르, 프루스트 볼(The Proust Ball, 1971년 12월 2일)

한국에서도 크게 사랑받는 프랑스 대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해 파리의 샤토 드 페리에르(Château de Ferrières)에서 펼쳐진 성대한 무도회. 초대받은 귀빈들이 총 7권으로 구성된 프루스트의 역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고 와야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이날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인 버킨, 세르주 갱스부르 같은 배우를 비롯해 8백 명의 유력 인사가 참석했지만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한 인물은 여배우 마리사 베렌슨이라는 희고담이 있다. '1970년대 최고의 미인'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한 그녀는 프루스트의 동시대 작가인 마르키즈 드 캐스티의 모습으로 꾸몄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넘쳤다. 다이아몬드 네크리스와 이어링으로 구성된 '마리사 세트(The Marisa Set)'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격조 있는 그녀의 이미지를 닮은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목걸이 정중앙에 보이는 물방울 다이아몬드(10.32캐럿)는 '로즈 컷'인데 정말이지 강렬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니콜라 보스 CEO의 애정 어린 자랑에 수긍하게 되는 건 제품 하나하나가 예술품에 가까워 보이도록 만드는 반클리프 아펠의 충만한 장인 정신과 세련된 스토리텔링 능력에 반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 가깝기 때문인 것 같다. 에디터 **고성연**



120세기의 전설적인 무도회를 재해석한 '볼드 레전드' 컬렉션 중 1971년 열린 프루스트 볼에 참석한 인기 여배우 마리사 베렌슨에게 영감을 받은 마리사 세트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 2기면의 도시 베니스의 유명한 무도회 센추리 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루 데코 세트' 목걸이, 3 파리 랑베르 호텔에서 개최된 오리엔탈 볼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으로 용의 자태가 인상적인 '맘모 오 드레곤 데코 클럽', 4 지난 2월 5, 6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린 볼드 레전드 행사를 위해 방한한 반클리프 아펠의 CEO 니콜라 보스. 한국 고객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뜻깊은 이벤트임을 거듭 강조했다. 5, 6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혜연, 고성연, 배두나 등 여배우들을 비롯해 2백여 명의 게스트가 참석했다.



Brilliant touch

화이트닝 스킨케어로 결점 없는 피부를 가졌다면, 이제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고급스러운 광채를 더할 때다. 피부 본연의 아름다운 빛과 컬러를 밝혀줄 부드러운 터치, '샤넬 르 블랑 메이크업 베이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진주 추출물이 선사하는 완벽한 피부

베이스 하나만 발라도 복숭아빛으로 뽀얗고 환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하여 일명 '복숭아 메베라'는 애칭을 얻은 샤넬 르 블랑 메이크업 베이스. 수년간 많은 미 투(me too) 제품을 안산할 만큼, 아시아 여성이 선호하는 화사한 피부와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해 큰 인기를 끈 샤넬의 베스트셀러다. 시중에 단순한 환한 피부를 연출하는 베이스 제품은 많지만, 인위적이지 않고 고급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하는 건 샤넬이 단연 독보적.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거론할 때마다 샤넬이 늘 상위에 랭크되는 것도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고급스러운 빛과 컬러 때문이다. 이처럼 여자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빛과 컬러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샤넬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는 이번 시즌 더욱 강화된 보습 성분과 뛰어난 자숙력,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로 업그레이드한 '르 블랑 라이트 크리에이터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 SPF 40 PA+++'를 선보인다. 이는 르 블랑의 핵심 성분인 2년산 진주 추출물을 담아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피부에 자연스럽게 화사한 광채를 부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노랗고 칙칙하게 변하는 다크닝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특징. 멜라닌 합성에 작용하는 각종 추출물이 거트가뭇한 다크 스폿을 완화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허일루론산 유도체가 피부에 풍부한 보습력과 편안함을 선사하고, 독성 성분인 인티미트닝 세라미드 활성 성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에너지 를 가시적인 빛으로 변화시켜 피부 결점을 커버하고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환하게 밝혀준다.

8시간 동안 지속되는 고급스러운 광채

르 블랑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할 때마다 자주 들은 많은 '피부가 물라보게 좋아졌다'라는 것이다. 안색이 좋지 않을 때도 이 베이스 하나만 발랐을 뿐인데 마사지를 받았나하는 질문을 받았을 정도. 그만큼 묵지고 일어난 듯 말갛고 뽀얀 피부를 연출하는 것이 샤넬 르 블랑 메이크업 베이스의 강점이다. 단독으로 바르거나 피운데이션 전 단계에 사용하면 되는데, 확실히 메이크업 첫 단계에 바르면 피운데이션이 밀착되고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컬러 톤으로 출시해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피부에 건강한 장맛빛 광채를 선사해줄 은은한 핑크 빛의 '로제', 울긋불긋하고 균일하지 않은 피부를 고르고 윤기 있게 연출하는 화사한 옐로 베이지 컬러의 '미모사', 어떤 피부 톤에도 고급스러운 진주빛 광채와 윤기를 더하는 투명한 화이트 컬러의 '리스' 등 총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질감은 손등에 떨어뜨리면 주르륵 흐를 만큼 묽은 타입으로 발림성이 좋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마치 수분감이 느껴지는 오일처럼 부드럽게 발리지만 마무리감은 피부에 가벼운 실크 막을 씌운 듯 보습보습하고 매끄럽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사용 전 보습을 잘 해준 후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퍼 비를 것.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것은 물론 8시간 동안 지속되는 고급스러운 광채 효과로 마치 타고난 피부가 좋은 듯 건강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각 30ml 7만원대.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빛의 마법으로 완성한 완벽한 광채 베이스

프랑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클라우델은 "빛을 창조하는 것은 금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빛'이라는 키워드는 최근 스킨케어는 물론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만들 때 모든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다. 투명하고 광채 넘치는 피부는 결국 스스로 빛을 발하는 피부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메이크업 제품을 이용해 피부를 정돈할 수는 있겠지만, 피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광채에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입생로랑 뷰티는 피부 속에서부터 나오는 턱서리하고 우아한 순수 광채를 유지하는 꽤나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 눈부신 순수 광채를 표현하고,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를 보호하는 입생로랑의 화이트닝은 빛의 혁명이자 오트 쿠티르라고 할 수 있다. 2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컨실러 '투스 에플라르' 이미 빛의 마법의 결정체를 보여준 바 있고, 입생로랑 뷰티의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컬렉션에서 빛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 모든 여성들은 본래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지니고 태어나지만, 자외선과 공해, 시간의 공격을 받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요즘 여성들은 '스스로 빛나는 피부'를 얻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와 베이스 제품을 더욱 명확한 기준 아래 선택하게 된다. 확실한 자외선 차단 기능은 기본이고, 피부를 맑아 보이게 하면서도 잡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데다, 화이트닝 기능까지 갖추어야 까다로운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립스틱부터 파운데이션은 물론 스킨케어 분야까지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입생로랑 뷰티는 '라이트닝 케어(lightning care)'라는 슬로건 아래 획기적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선보였다. 바로 피부 톤과 피부를 각자적으로 교정해주는 미세팅 테크놀로지로 피부 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빛의 프리즘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라이트닝 CC크림과 자외선과 공기 중의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의 순수 광채를 보호해주는 라이트닝 광채 베이스 UV 프로텍션이다.

운명을 바꾸는 라이트닝 CC크림과 라이트닝 UV 프로텍션

수많은 여성들이 열광하는 스스로 빛나는 피부, 라이트닝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입생로랑 뷰티에서 가장 자신 있게 선보이는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라이트닝 CC크림은 짧게 화이트닝 CC로 불릴 만큼 피부에 순수 광채를 선사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피부결이 균일하게 반사되도록 해 결점이나 칙칙함이 없는 투명하고 화사한 '순수한 피부를'을 만들어준다. 칙칙하고 창백한 피부에는 로즈 광채를 선사하는 로즈 컬러, 피부 톤이 고르지 않다면 골드빛의 아프리카 컬러, 피부 톤이 노랗고 혈색이 좋지 않다면 라벤더 컬러가 잘 맞는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갖춘 똑똑한 CC크림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어둡고 칙칙한 피부 톤을 소량으로도 커버할 수 있고 잡티를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것은 물론이다.

보다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지닌 베이스 제품을 찾고 있다면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UV 프로텍션 SPF 50 PA+++을 추천한다. 일단 자외선 차단 분야에서 독보적인 노하우와 특허를 보유한 로레알 그룹의 브랜드이니만큼 자외선 차단 효과는 확실하다. 텍스처 역시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밀리지 않아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다. 또 안티-플루선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만드는데, 미세 먼지나 공기 속의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입생로랑 뷰티의 스킨케어 제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인 글리칸 액티프WT™를 함유해 주름까지 개선하니 이보다 기능이 많은 자외선 차단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여성의 얼굴에 순수광채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입생로랑의 집념, 혁신적인 차세대 미래 피부 과학의 랩데부로 탄생한 입생로랑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의 두 가지 라이트닝 베이스는 눈부시고 럭셔리한 순수 광채를 여성들의 피부에 더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 입생로랑 라이트닝 CC크림 40g 7만원, 라이트닝 UV 프로텍션 SPF 50 PA+++ 30ml 7만원대. 문의 080-347-0089 에디터 배미진



Pure skin

스킨케어 과학과 빛에 대한 열망이 완성한 자외선 차단제와 라이트닝 CC 크림. 밝고 화사한 순수 광채로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에 대한 여자들의 소망은 입생로랑 뷰티를 만나 현실이 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rt of Scent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향수, 특별한 향기로 1백78년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브랜드, 바로 에르메스다. 국내에서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 오랜 노하우를 쌓아온 신세계가 최고의 럭셔리 하우스 에르메스와 손잡고 모든 뷰티 라인을 독점으로 선보이며 새 출발을 알린다. 이를 위해 신세계 본점에 에르메스 퍼퓸 단독 부티크를 오픈하며 최고의 향기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에르메스 퍼퓸, 위대한 탄생

에르메스 향수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된다. 1837년, 브랜드가 생겨난 지 한참 뒤의 일이다. 에르메스 최초의 여성 향수인 칼레쉬(Calèche, 작은 마차)는 그보다 더 뒤인 1961년에 탄생했다. 금속 유리 보틀에 고급스러운 비누 향을 담은 칼레쉬는 지금까지 에르메스의 대표 향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패션 하우스로서 에르메스가 지닌 고집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고전미를 더한 향수를 선보이는 에르메스는 전속 조향사를 둘 정도로 향수에 조예가 깊다. 에르메스 향수의 조향 사장 클로드 엘레나는 시슬리 오드 캄파뉴, 임생로랑 인 러브 어게인, 불가리 오 파퓌메 오 페 베르 등을 탄생시킨 세계적인 톱 클래스 조향사로 꼽힌다. 순수성과 자연에 대한 예술적인 경의를 바탕으로 감성이 가득한 향을 만드는 그는 2004년 에르메스 최초의 전속 조향사로 합류, 에르메스 퍼퓸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르뎡, 켈리 칼레쉬, 보아쥬 테르메스 같은 향수를 선보이며 하나같이 최고의 향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모든 면에서 최고만을 추구하는 에르메스 향수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다.

향수 그 이상, 아트 오브 리빙

각각의 향수는 최상의 장인 정신, 독창성, 판타지가 낡은 하나의 작품이라는 향수에 대한 장 클로드 엘레나의 철학에는 에르메스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2014년에는 디자이너이자 조향사인 크리스틴 나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아트 오브 리빙(Art of Living)을 창조했다. '향과 어울리는 삶을 뜻하는 아트 오브 리빙은 르 뱅 에르메스와 르 파퓸 드 라 메종 라인을 출시함으로써 가시화됐고, 르 뱅 에르메스 라인은 비누, 샤워 젤, 보디로션과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화려한 색감으로 디자인했다. 그중에서도 2013년 출시한 주르 테르메스 라인의 베스 앤 샤워 젤, 보디로션, 보디 크림은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한다. 에르메스에서는 퍼퓸 컬렉션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 향수를 향의 깊이에 따라 문학 장르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등장인물과 에피소드가 풍부한 장편소설에 해당하는 건 클래식 라인의 퍼퓸들. 그중에서도 칼레쉬, 아마존, 에끼빠쥬, 벨 아미는 고전이라 할 수 있고 보아쥬 테르메스, 주르 테르메스 등은 신작에 해당된다. 자르뎡과 코롱 컬렉션은 단편소설로 분류되며 찰나의 시간에 남녀노소가 향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에르메스상 컬렉션은 함축적인 표현 속에 강렬한 의미를 지닌 시에 해당된다.

에르메스상스 향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향기들은 몽상에 해당하며 도예가 기욤 바르테가 디자인한 종이접기 형태의 말, 조약돌, 도자기 양초 등에 담아 일상생활 속에서도 에르메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에르메스 퍼퓸은 오는 3월 2일 신세계 백화점 본점 1층에 퍼퓸 부티크를 오픈해 에르메스만의 클래식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아트 오브 리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디 제품부터 향수까지 무엇을 선택해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르메스와 함께하는 향수의 여정이 될 것이다. 문의 02-310-5174 에디터 배미진



1 보석같이 아름다운 에르메스의 뷰티 제품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주르 테르메스 컬렉션의 퍼퓸드 바디 크림, 오드 퍼퓸, 입술유 오드 퍼퓸, 퍼퓸드 바디로션, 베스 앤 샤워 젤. 오른쪽 아래 말 모양으로 점은 퍼퓸드 오리гами 호스는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페아피에 에르메스 향기를 들뜬 감성용 방향 제품이다. 2, 4 에르메스 향수는 30여 년 전부터 모두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르 보드뢰유(Le Vaudreuil)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배출된다. 3 에르메스의 향기를 책임지는 조향사 장 클로드 엘레나. 5 랜던 모양의 향수병에서 영감을 받은 주르 테르메스 오드 퍼퓸.



perfume of Prestige

메르세데스-벤츠의 별 모양 심벌은 엔진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아우르고자 한 고틀립 다임러의 기상을 보여준다. 고급과 품격, 부, 권위를 표현하는 강력한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 성공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완벽한 품질의 승리, 메르세데스-벤츠

벤츠 로고가 돌보이는 이 새로운 향수는 남자들에게는 독특한 설렘을, 자동차 브랜드 로고를 만 향수를 처음 본 이들에게는 신선함을 선사하며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성공을 상징하는 이 드라마틱한 실루엣의 향수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업 정신을 담은 아주 효과적인 메인 저다. 1872년 도이츠 가스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였던 고틀립 다임러는 1890년 다임러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그의 두 아들이 회사를 책임지게 됐고, 새 자동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는 큰 성공을 거뒀다. 아들 폴 다임러는 메르세데스에 어울리는 상표로 아버지가 구상한 세 꼭지의 별을 선택했다. 엔진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아우르고자 했던 고틀립 다임러의 뜻대로 1909년 지금의 로고에서 테두리 원만 없는 세 꼭지의 별이 탄생했고, 1910년부터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앞에 장식됐다. 이후 벤츠사와의 합병으로 로고는 변화했으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또 고급과 품격, 부, 권위를 표현하는 브랜드 이상의 가치를 영위하고 있다.

성공으로 가는 파트너, 클럽 블루

하늘로 치솟아오를 듯 유연한 라인을 자랑하는 은빛 향수 한 병에는 일반적인 향수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들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향수 '클럽 블루'는 창조적 열정이 충만한 브랜드의 역사와 기품을 담아 향을 배합하고, 젊은 감각으로 스토리를 전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매끈한 보드에 유선형의 부드러운 라인은 벤츠만의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디자인 감각을 뽐낸다. 무엇보다 이 향수는 자유롭고 윌트 있는 남자에게 세련된 오라를 더해준다. 베르가모트, 그라나펠 등의 프루티 계열 톱 노트가 상쾌한 기분을 선사하고 세이지, 라벤더, 오렌지 플라워의 미들 노트가 부드러움을 더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드와 머스크 계열의 베이스가 전하는 묵직한 카리스마 또한 매력적이다. 특히 클럽 블루는 벤츠 스포츠카와 함께 예지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청춘에게 소속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향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 출시된 포맨이 중후하면서도 품격 있는 남자를 표현했다면 이 제품은 그보다 좀 더 젊고 자유분방한, 세련된 이미지의 20~30대 초반 남자를 표방한다.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

클럽 블루는 수트를 완벽하게 갖춰 입은 남자보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편안하지만 세련된 느낌의 남성을 연상시킨다.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멋스러움과 자유로운 이미지를 갖고 싶다면 도전해볼 만한 향기다. 무엇보다 벤츠의 로고가 양각된 보틀은 흔히 볼 수 없는 유려한 곡선을 자랑하는데, 벤츠 스포츠카를 손에 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후면 스프레이 부분은 그림감이 뛰어난 향수를 뿌릴 때 불편함이 없다. 또 투명한 보틀 옆면으로 침투하는 청량감 넘치는 워터는 클럽 블루의 매력에 정점을 찍는다. 2012년 메르세데스-벤츠 포 맨을 시작으로 포 우먼, 클럽, 우먼 로에 이어 야심 차게 내놓은 클럽 블루. 한 번쯤 말아본 적 있는 흔한 향수가 아닌, 성공의 기분을 함께 안겨줄 수 있는 향수를 찾고 있다면 그 정답은 단연코 클럽 블루다. 문의 02-3443-5050 에디터 배미진

2015 new whitening

화이트닝은 더 이상 스페셜한 케어가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뷰티 습관이 되었다. 에센스형 토너로 시작하는 수분 케어를 기본으로 스폿 케어, 다크서클 케어로 이어지는 꼼꼼한 관리,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다양한 텍스처의 자외선 차단제까지, 2015년 더욱 편리하고 축축해진 새로운 화이트닝 제품만 모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화이트닝 케어, 데일리 케어로 진화하다

매년 봄이 되면 새로운 화이트닝 라인이 뷰티 시장을 점령했지만, 이제 화이트닝 기능이 강조된 특별한 화장품을 별도로 구매하기보다는 일상의 뷰티 루틴에 화이트닝 제품을 추가하거나, 화이트닝 기능성 팩트와 자외선 차단제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매년 봄을 뜨겁게 달구는 특별한 이벤트였던 화이트닝이 매일 함께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이트닝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 중 가장 특별한 신제품은 샤넬에서 화이트닝 라인으로 새롭게 선보인 르블랑 브라이트닝 펄 습이다. 순백색의 둥그란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진주 추출물과 아르간 오일이 피부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거품이 풍부하기 때문에 짙은 메이크업은 전용 리무버로 지워낸 후 사용하면 피부를 보다 부드럽게 클렌징할 수 있다(100g 8만1천원).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화이트닝 세럼이나 에센스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필수 아이템인데, 올해 리뉴얼해 선보인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 르 그랑 빅타 블랑은 다크 스폿의 원인을 차단하는 신개념 화이트닝 에센스다. 비슷한 자리에 다크 스폿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피부가 다크 스폿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 다음에서는 이 다크 스폿의 기억을 차단해주는 화이트 로즈 성분을 제품에 담아 다크 스폿을 집중적으로 케어한다(30ml 46만원). 자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한 아이 케어 제품도 필수다. 입생로랑의 다크서클 완화 아이 에센스와 키엘의 다크서클 전용 CC크림은 눈가 전용 화이트닝 기능에 커버력까지 갖췄다. 오직 눈가만을 위해 출시한 제품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하다.

자외선 차단과 수분 공급, 베이식이 트렌드다

시즌을 막론하고 화이트닝의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자외선 차단과 수분 공급이다. 너무나 푹푹해진 국내 뷰티 소비자들은 이제 단기간에 마법 같은 효과를 낸다는 문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라는 기본 관리에 많은 공을 들인다. 화이트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확실한 수분 공급은 화이트닝 유효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맑은 피부 톤과 결은 피부의 수분 보유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가장 적극적인 화이트닝 케어라 할 수 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미네센스 글로우 액티베이터 아쿠아 에센스는 피뎀결을 안정화하고 유효 성분의 흡수력을 높여주기에 필수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보습과 영양 공급, 진정 효과로 화이트닝 제품의 흡수를 돕는 수분 공급 투인원 로션으로 용량이 넉넉해 얼굴 전체에 여러 번 덧발라도 좋다(150ml 8만9천원). 랑콤의 전설적인 화이트닝 라인인 블랑 엑스퍼트에 새롭게 추가된 브라이트니스 디퓨전 에센스 인 로션 역시 로션을 넣어 에센스라고 해도 될 만큼 묽은 스킨 타입으로, 이 제품 하나로 기초 케어를 대신해도 될 만큼 축축하다. 화이트닝 기능성 안증까지 받았으니 그 효과는 더욱 믿을 만하다. 기본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CC크림, 팩트까지 자외선의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채로워지고 있다. 에스티 로더는 기존 화이트닝 라인을 완벽하게 리뉴얼해 크레센트 화이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화이트닝 라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맑은 피부를 위한 참 쉬운 뷰티 습관 5

맑은 피부를 원하면서 사소한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결과는 매번 실패다. 단순한 것 같아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어려운 화이트닝 생활 습관을 기억하자. 작지만 사소한 실천이 맑은 피부를 만든다.

- 3백65일 자외선을 차단하라**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50% 정도의 자외선은 구름과 안개를 통과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실내 형광등도 피부에 자외선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덧바르는 것은 최선이자 최고의 화이트닝 방법이다.
- 비타민 C와 제철 과일을 챙겨라** 근본적으로 피부 면역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맑은 피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과음, 과로로 지친 피부는 화장품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비타민 C를 별도로 복용하거나 제철 과일, 채소를 매일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피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더해 하루에 500ml짜리 생수를 7병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된다.
- 눈가 탄력을 위한 리페어 제품을 사용하라** 다크서클과 눈가 주름은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눈가 탄력이 저하되면 색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탄력부터 신경 써야 한다. 낮에는 화이트닝과 보습 제품을, 밤에는 피부 재생을 돕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잔잔 내력을 살려라** 연구 기관의 조사 결과 보통 70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중 21%가 부모나 자매, 가까운 친지도 70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여성은 한 번이 생가 생가 생가 잘 없애지지 않는 잔미칠이 많으므로 잔잔 스구미가 색소에 취약하다면 1년 내내 화이트닝에 집중해야 한다.
- 40대 이상이라면 검버섯에 주의하라** 40대를 넘어서면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어 재생, 보호, 보습, 영양, 산소 공급 등 피부의 5대 기능이 모두 저하되기 때문에 검버섯이 생기기 쉽다. 자외선 차단과 보습, 화이트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늘 중요하게 여기고 숙면을 하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이 연령대에는 목에도 다크 스폿이 생길 수 있으니 넥 케어에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

참고 도서 (WHEB) <조혜경 지음, 랜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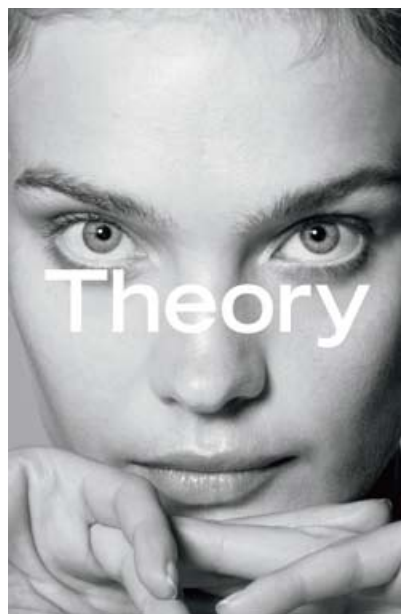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레센트 보네 세럼, 정산드레 에클라시앙 이오 화이트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크서클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마백 전용 세럼. 20대의 푸른 다크서클을 넘어 색소 침착으로 더 진해진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30대 이상 여성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클레드보 보네 기술 연구소가 개발한 화이트닝 성분과 홍차 추출물이 눈가를 투명하게 가꾸어준다. 보습 효과도 뛰어난 편. 15ml 11만원. 080-564-7700 **섀도우 퍼펙팅 쿠션 브라이트닝** 묵연 추출물과 진주 성분이 즉각적인 브라이트닝과 인색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인색을 맑게 해주는 김초 추출물을 정제수 대신 사용해 화이트닝에 더욱 효과적이다. 15gx2 6만5천원. 080-023-5454 **입생로랑 포에버 라이크 크리에이티브 아이 풀루이드** 마백 기능성 효과를 지닌 아이 존 크레터. 다크서클을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도록 베이스 기능까지 갖추어 힐링 효과적이다. 림글로스 크기의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간편하다. 15ml 8만5천원. 080-347-0089 **슈에다라 초아 유스풀 크림** 탄력과 결, 광채를 한 번에 케어하는 축축한 크림. 밤 추출물과 로열젤리로 완성한 비온스 콤플렉스는 피부 속 밀도를 높여 빛나는 피부를 완성한다. 화화나무 꽃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림노스 성분을 담았다. 50ml 10만5천원. 080-022-3332 **에스티 로더 크레센트 화이트 풀 사이클 브라이트닝 UV 프로텍터 SPF 50 PA+++** 자외선 차단, 화이트닝 기능성 인증을 받은 새로운 화이트닝 자외선 차단제. 부드럽고 축축한 제형은 기존 화이트닝 라인 의 장점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아시아 여성 8백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했을 만큼 공을 들인 제품이다. 30ml 6만2천원. 문의 02-3440-2772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화이트 세럼/에이저 세럼** 화이트닝에 가장 효과적인 노하유를 갖춘 시세이도의 새로운 화이트닝 세럼. 기미와 검버섯 등 노화에 따른 잡티를 조정하는 이더 펄

라노-5 펄드 메카니즘의 정상 작용을 활성화하는 기미와 검버섯을 생 성하는 성분과 헤미란 황산 황산화 성분을 담은 섀도우WT를 담 았다. 비온 후 원상을 그리며 마사하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40ml 21 만원. 080-564-7700 **키엘 다크서클 CC 아이크림** 다크서클 을 가라앉히는 마네콜 피크먼트에 착한 눈가를 투명하게 만드는 액 테아티드 C 성분을 더한 데다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춘 매력적 인 아이 케어 제품. 피라칸과 인공 향을 배제하고, 인과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물론 화이트닝 기능성 인증까지 받은 스킨케어 제품이다. 15ml 4만8천원. 080-022-3332 **에스티 베이진**



사진 이야기는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인 피어리의 광고 비주얼이다. 피어리는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와 클레망 사베르노를 모델로 기용했을 뿐 아니라 브랜드 로고까지 리뉴얼해 큰 변화를 알렸다.



urban Sophistication

자연스러운 맞춤 재단, 소매 없는 트렌치코트, 비구조적인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담긴 피어리의 2015 S/S 컬렉션은 보는 것만으로도 신묘한 변화를 느끼게 한다. 나탈리아 보디아노바를 뮤즈로 내세운 컨템퍼러리 패션 브랜드 피어리(Theory)가 새롭게 디자인한 모던한 브랜드 로고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시작한다.

여러 컷으로 나열된 멋진 사진들은 2015년 2월 뉴욕, 성공적인 컨템퍼러리 패션 브랜드 피어리에서 선보인 2015년 S/S 시즌 광고 비주얼이다. 포토그래퍼 데이비드 심스가 톱 모델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와 클레망 사베르노를 지금 가장 세련된 도시인 런던에서 촬영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 것이다. 이 캠페인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브랜드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18년 전 피어리 브랜드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리뉴얼된 로고를 선보이는 변화의 순간이기도 하다. 청량하고 모던한 느낌의 광고 비주얼과 심플하고 감각적인 로고 디자인 모두 피어리의 주요 브랜드 가치인 도시적인 세련됨과 편안함을 강조한다. 피어리의 CEO인 앤드루 로젠은 “브랜드 설립 이래로 피어리는 입을 사람들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옷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며, “한 아이의 엄마이자 막애주의자이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나탈리아 보디아노바는 모던한 피어리 우먼을 표현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밝혔다. 1997년 첫선을 보인 피어리는, 도회적인 의상과 기본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셉트로 컨템퍼러리 패션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다. 정교하게 테일러링된 실루엣과 뛰어난 소재의 컬렉션을 통해 럭셔리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었기에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물론 현재 패션계의 모습은 과거 피어리가 설립되었을 때와 많은 차이가 있다. 처음 선보였을 당시 피어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고품질 소재를 사용한 테일러링이 뛰어난 의상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현대적인 요소로 가득한 세련된 컬렉션을 선보이는 유일한 브랜드였다. 2015년 현재, 피어리의 이러한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욱 까다로운 소비자들과 경쟁이 더 치열해진 패션 시장에서 진화해야 했고, 그 결과 올해 새로운 로고와 광고 비주얼, 모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광고에 등장하는 피어리의 S/S 컬렉션의 모든 옷에는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했다. 특히 쉽게 주름이 생기지 않는 소재의 테일러드 피스들은 여행 혹은 출장 중에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피어리의 브랜드 정신은 아름답고 입기 편안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일터에서 입을 클래식 슈트든, 휴식을 취하는 주말을 위한 기본 의상이든 말이다. 피어리는 서서히 진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빠른 변화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편안한 옷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이 치열한 패션계에서 피어리는 혁명 대신 조용한 진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문의 02-544-0065



때로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아름다움 뒤에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벨기에 럭셔리 가죽 브랜드 '델보'의 이야기다. 1백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아함과 고고한 자태, 그 아름다움에 조화롭게 맞물린 모던한 감성이 델보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왕실의 가방'이었던 델보 백에 모더니티를 접목해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델보의 프로덕트 & 이미지 디렉터 크리스티나 젤러가 그 매혹의 비밀을 전했다. *photographed by koo eun mee*

가장 오래된 스타트업 컴퍼니, 델보

델보는 벨기에가 탄생한 해보다도 1년 앞선 1829년 설립된 브랜드다. 샤를 델보가 여행용 트렁크 제조 브랜드로 설립했으며 뛰어난 가죽의 품질을 인정받아 반세기가 지난 후 벨기에 왕실이 수여하는 '왕실 공식 가죽 공급자'라는 영예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벨기에 왕실이 5년에 한 번 선정하는 타이틀로, 1883년에 처음 선정된 이래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델보의 뛰어난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908년에는 핸드백에 대한 특허를 세계 최초로 받아내며 럭셔리 핸드백의 선구자가 되었다. 한 나라와 역사를 같이한 브랜드라는 점 외에도 델보는 20세기 여성은 물론 21세기 여성까지도 갖고 싶어 하는 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쯤 되면 1백80년이 넘게 이어져온 델보의 헤리티지와 고유의 브랜드 DNA를 유지하면서 동시대적인 스타일을 선도하는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델보의 프로덕트 & 이미지 디렉터 크리스티나 젤러는 작지만 재미있는 요소로 트위스트(twist)를 활용한 닥분이라는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다. 델보 백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형태적인 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어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하기가 무척 수월했다는 것이다. “델보는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타임리스한 디자인에 새로운 프린팅 기법과 컬러, 스타드, 버클 같은 장식을 추가하거나 변형해 고객이 작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델보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칭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델보가 더욱 인기를 모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요즘 럭셔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좀 더 세다르고 신비스러운 럭셔리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델보는 한 번도 럭셔리 고객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델보의 프로덕트 & 이미지 디렉터가 되기 전 칼 라카펠트와 7년간 일했으며, 크리스찬 라크루아에서 2년, 지방사에서 12년간 액세서리 라인 디렉터로 일한 경력이 있는 크리스티나 젤러. 35년간 패션계에 몸담으며 럭셔리 브랜드를 꿰뚫고 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델보 백은 바로 브리앙과 위드미다. 브리앙은 처음 본 순간 우아하고 유니크한 매력에 반해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생각이 든 백이라는 말로 애정을 표현했고, 위드미는 캐주얼하고 편안한 차림에 매치하기 좋은 백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노르망디에서의 휴가와 전원의 낭만을 담은 2015 S/S 델보 컬렉션

크리스티나 젤러는 델보가 지향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혔다. 델보가 지향하지 않는 것은 '너무 빈티지스러울 것'이다. “빈티지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것은 더 이상 동시대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하며 예전의 디자인에 고인 물처럼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의 모던하고 유니크한

델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일까. 델보는 관습에 도전하고 질문을 던지는 화가의 작품에서 종종 영감을 얻어왔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파이프 그림 속 문구를 패러디한 브리앙 백이 그 예다. 이번 시즌에는 직설적인 표현이 특징인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뽕밭 위의 점심 식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컬러와 다양한 텍스처로 더욱 모던하게 발전시킨 브리앙과 탕테트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노르망디에서 즐기는 휴가와 전원이 주는 기쁨, 여유로움에서 모티브를 얻어 미모사, 선셋 같은 화사한 컬러로 표현했다. 델보의 시그니처 백인 브리앙의 마니아라면 이번 시즌 즐겨볼 만한 스타일이 많다. 송아지가죽에 실크 스킵프 염색 기법을 사용해 화사한 핑크 컬러 카네이션을 그려대어선한 꾸트웨이에 그중 하나. 오후에서 해 질 녘으로 넘어갈 즈음 밑밭에 내리찍는 따사로운 햇빛을 표현한 구릿빛에 스타드 장식을 입힌 팔로미노 푸오로네도 붓과 여름 룩의 품격을 높여 줄 것이다. 델보는 이번 시즌에 남성 컬렉션도 국내에 처음 론칭했다. 남성 컬렉션 역시 가죽으로 감싼 잠금장치와 버클, 화이트와 블랙부터 상쾌한 오렌지 컬러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컬러에서 델보 하우스의 장인 정신과 세련된 절제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특히 노트북 등 기기를 보다 용이하게 수납할 수 있는 뉴스페이퍼 백은 탁월한 기능성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에티튜드를 우아하게 표현해 델보 백에 더욱 특별한 애정이 간다는 크리스티나 젤러의 말처럼, 자신만의 감성을 세련되고 우아하게 표현해줄 백을 찾고 있다면 이번 시즌 델보 컬렉션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문의 02-3449-5916

1.델보의 2015 S/S 프렌체이션 한정. 2.해 질 녘 일몰에 내리찍는 따사로운 햇빛을 표현한 팔로미노 푸오로네도 백. 3.1959년 결혼 선물로 델보가 제작한 백을 든 벨기에 피올라 왕비와 알베르 2세 왕 부부. 4.1968년에 탄생한 르 브리앙. 5.델보의 프로덕트 & 이미지 디렉터 크리스티나 젤러.



all day Luminous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마주한 나스의 새로운 파운데이션, '올 데이 루미너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은 '멘 얼굴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커버력과 매끈한 윤기를 살려라'라는 제품의 콘셉트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다. 미스트 쿠션과 CC크림 등 차세대 베이스 주자에 자리를 위협받았던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부활이 나스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2



완벽한 커버력과 매끈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선택

대담한 컬러, 예측을 뛰어넘는 컬러매치이션,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한 제품의 이름, 시대를 관통하는 모던한 이미지까지 지금 코즈메틱 시장에서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브랜드를 꼽으라면 단연 나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에디터와 파워 블로거, 뷰티 스페셜리스트 등 뷰티에 정통한 이들이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보내지 않는가. 에디터 역시 일루미네이터 코파카바나와 모노이 바디 오일, 네일 레커는 물론 입이 닳도록 추천하는 오르가즘 블러셔까지 나스의 열렬한 추종자임을 밝힌다. 지난해 11월, 지금 막 선보이기 시작한 신제품 파운데이션과 스프링 컬렉션을 4개월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남다른 기대감과 애정을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도쿄에서 열린 글로벌 프레스 이벤트를 아오야마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1부는 2015 스프링 컬렉션과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2부는 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장으로 구성되었다. '올 데이 루미너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을 세 단어로 압축하자면, '높은 커버력', '가벼운 느낌', '지속력'. 자연스러우면서 완벽한 커버력과 매끈하게 빛나는 피부에 초점을 맞췄다는 콘셉트는 어찌 보면 파운데이션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키워드라 조금은 심드렁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나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프랑수아 나스의 글로벌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토 사다가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모델 시연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자리에 앉아 듣고 보는 시간을 거쳐 이벤트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나스의 스프링 컬렉션과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직접 경험하는 순서를 위해 에디터 역시 뷰티 카운터에 자리했다. 피부 톤을 확인한 후, 밝게 화장하지 않는다는 평소 메이크업 방식에 맞게 10여 종류 중 한 가지 컬러를 선택했다. 무경을 열기 전 가볍게 혼든 뒤 한 번의 펌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을 듣고 얼굴에 발랐는데, 첫 느낌은 "가볍고 촉촉하다" 펌핑 한 번이지만 양이 꽤 돼서 두꺼워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걸들지 않는 것은 물론 억지스럽게 피부 톤을 비뚤게 티가 나지 않아 눈이 동그해질 만큼 놀랐다. 스프링 컬렉션의 레클레스 블러셔만 더해 얼굴이 화사하나 주위에서 먼저 "에쁘다"를 연발하니 흡족할 수밖에. 당장 오르가즘 블러셔 다음 자리를 차지할 만큼 100% 만족스러웠다. 설명만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해본 것이 이토록 큰 차이가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을 잡아당기는 듯 밀착력이 높은 것에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다음 날 피부 톤에 맞춘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 번 써보니 어제의 경험은 단순히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음은 물론이다.



ONE DROP PURE PERFORMANCE CHARACTER REVEALED

1 자연스러우면서 완벽한 커버력과 매끈하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하는 나스의 신제품 파운데이션, 올 데이 루미너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2 지난 11월, 도쿄에서 개최된 올 데이 루미너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글로벌 프레스 이벤트 현장. 3 2015년 상반기 나스의 새로운 뮤즈, 틸다 스윈턴. 4 글로벌 프레스 이벤트 현장에서는 나스의 글로벌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토 사다가의 메이크업 시연이 이루어졌다.



2015 상반기 캠페인의 나스의 새로운 뮤즈, 틸다 스윈턴

예측을 뛰어넘는 비주얼과 뮤즈는 나스를 대변하듯 항상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거듭해왔다. 전형적으로 예쁜 얼굴이나 젊은 스타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오라와 자신감을 지닌 여배우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기준 아래 그레타 가르보, 마를레네 디트리히, 카트린 드뇌브, 샬럿 램플링에 이어 올해 상반기 캠페인의 새로운 얼굴로 틸다 스윈턴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차갑지만 강렬하고 카리스마를 지닌 틸다 스윈턴은 2015 나스 스프링 컬렉션의 대담하고 중성적인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블랙 팬트도 머리와 턱선을 모두 가린 채 얼굴만 드러내거나 옷을 입지 않고 헤어도 특별한 스타일링 없이 오로지 페이스만으로 승부를 거는 비주얼은 시선을 붙들 만큼 강렬하면서도 그녀만의 오라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했다. '뉴트럴 누드'를 주제로 한 2015년 스프링 컬러는 다양한 누드 톤의 믹스 매지로 얼굴 라인을 살리고 깊이를 더해 입체감이 살아 있는 모던한 페이스를 표현했다. 레드, 그린, 블루 등 대담한 컬러를 내세우는 나스지만 이번 컬렉션은 정반대로 느껴질 정도다. 프랑수아 나스는 "진 컬러도 좋아하지만 무채색도 좋아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지요. 베이지와 브라운, 아이보리 같은 대담한 컬러 없이도 관능적이고 생동감 있게 조각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 제가 언제나 즐겨 하는 것이지요"라며 이번 컬렉션에서 반드시 사주어야 할 제품을 덧붙였다. "레클레스 블러셔와 기아나 립글로스는 약간의 색감을 주면서 입체적인 음영이 되살아나도록 해줍니다." 문의 02-6905-3747 에디터 이예진 도쿄 현지 취재

editor's Pick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어느덧 피부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환절기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엄선한 봄날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미추 블러범 옴 파운데이션, 새롭고 편안한 향으로 사파이는 레드 베리와 시트러스의 톤 노트가 뿌리는 순간 상큼한 기분을 선사한다. 이어 우아한 로즈와 화이트 마스크로 마무리되는 향이 매력적이다. 특히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은 반짝이는 핑크색 보틀이 더욱 소장하고 싶어 만든다. 100ml 15만5천원. 문의 080-800-8809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엑스티시 405호 우아하고 고혹적인 레드 컬러가 마음을 사로잡았고,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글로브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에 또 한 번 반했다. 피부속 속 핏수 아토피가 되어버린 레드 립스틱은 루즈 엑스티시가 단연 최고. 4g 4만4천원. 문의 080-022-3332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광명 비추어스 돌 아이즈 마스크라 및 넷째 사용 중인 광명의 마스크라. 그만큼 광명의 마스크라는 실랑이된 적이 없다. 특히 인형 같은 속눈썹으로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땐 이 마스크라가 제격이다. 브러시에 풍부하게 묻어 나오는 점유성이 속눈썹을 연장할 것처럼 길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6.5g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글로벌 로즈 드 콜로에 핸드크림 싱그러움 정미 향이 하루 종일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핸드크림. 콜로에의 시그니처 향수인 로즈 드 콜로에의 향기를 그대로 담은 제품으로, 매혹적인 향과 손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주는 풍부한 보습력이 특징이다. 75ml 3만2천원. 문의 02-6924-6071_by 에디터 권유진

보타니쿠스 데드 씨 미드 오션어 클레이 인텐시브 리메이 오일 마스크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워시 오프 타입의 미드 팩. 일주일에 한두 번 이 마스크로 팩을 하는데, 풍부한 미세알 성분 함유한 미드를 70%가량 담고 인센이 물리학적 환형하고 피부가 보습보충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150g 4만8천원. 문의 070-7116-2765_by 에디터 권유진

다미에 엑스메가 젤 우방 에몰러방 클렌징 폼을 좋아하지만 자극이 두려운 에디터에게 꼭 맞는 자극 제방. 프랑스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극강성분 1위 브랜드인 다미에의 젤 클렌저는 식물 활성 성분으로 만들어 면역력이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 피부를 자극 없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0ml 2만8천원. 문의 02-515-0591_by 에디터 배미진

맥스루디오 컨실 앤 코렉트 듀오 패일한 멜로와 핑크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된 컨실러. 피부 톤 혹은 용도에 따라 섞어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제형이 크리미하고 부드러워 잡자기 울라온 뽀루자를 기라기에도 효과적이다. 8ml 3만8천원. 문의 02-3440-2782_by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메이크업 포에버 코팅 래스팅 파우더 안보이테드 HD 파우더 입자가 곱디고운 100% 마세린 파우더. 페이스용으로 사용하지만 에디터의 티가 있던 아이브로의 유분기를 잡아줄 때도 이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 눈썹을 그릴 때 유분이 있으면 아이브로 색도가 쉽게 지워지거나 뭉칠 수 있는데, 이 파우더를 사전 버러사에 가볍게 묻혀 터치하면 눈썹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된다. 8.5g 5만원. 문의 080-514-8942_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부활제 이트라젠트 부르 로 고프 바디 미스트 샤넬의 향수 중 가장 신뜻하고 가벼운 매력을 지닌 샹소 옴드르의 향기를 담은 미스트. 평소 향수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 타라 가볍게 뿌릴 수 있는 미스트가 향수보다 더 손이 간다. 스파클링한 플로럴 향기가 부활처럼 잊고 마친 체취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100ml 5만7천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배미진

동인지 동인지 크림 먹어도 좋은 홍삼을 피부에 비한다면? 6년근 홍삼 중 상위 0.5%를 차지하는 진귀한 홍삼 성분 함유 이 크림은 메이크업 지닌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활력을 찾아주는 고농축 영양 크림이다. 진득한 홍삼 함유 피부에 비는 듯한 느낌이 쫄쫄한 텍스처가 인상적이고 은은한 향으로 거부감이 없다. 60ml 78만4천원. 문의 080-710-2304_by 에디터 권유진

입센로랑 로 영 엔코르 드 보 파운데이션 팬촉에 담긴 입자 크기가 크기에 드러내 선명한 글씨를 새는 것에 영감을 받아 마치 펜촉처럼 디자인한 파운데이션 애플리케이터를 다한 토크스팅 파운데이션. 평소 자외선 차단제에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적은 양으로도 깔끔하게 잡자를 커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8g 7만7천원. 문의 080-347-0089_by 에디터 배미진

나스 신스 아이샤드 발발라 펄스 뉴트럴 계열의 메이크업을 선호한다면 이 부드러운 피치 핑크 색조의 세도도 놓치지 않을 것. 촉촉한 누드 톤이 아닌 여성스러운 피치 핑크 계열의 세도도, 화사하면서도 깊고 그윽한 눈기를 연출할 수 있다. 2.2g 3만5천원.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권유진

딤티크 로사블리아 크림 은은한 로즈 향이 매력적인 딤티크의 향초. 발향력이 매우 뛰어난 100cm(30명)가 넘는 공간에도 충분한 향기를 전달하고 호텔에서도 풍기는 출자를 알 수 없는 냄새도 깔끔하게 없애준다. 오래 커두어도 향기가 자극적이지 않다. 190g 9만3천원. 문의 02-514-5167_by 에디터 배미진



거장의 건축물을 산책하다



최근 해외여행에서 건축 거장들의 작품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명 건축물을 직접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주목할 만한 스타 건축가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듯해서 아쉽다. 건축 미학에 관심 있다면 알바루 시자, 도미니크 페로, 장 누벨, 안도 다다오, 구마 겐고 등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국내에서 감상하는 우리나라 건축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1 포르투갈 출신의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Photographed by Fernando Guerra © Openbooks. 2 인도 다리가 설계한 본태박물관은 건축가 고유의 단아한 라인과 한국 전통 담장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매력적이다. 3 제주도에서 가본 꼭 방문해야 할 도미니크 페로의 아트 빌라스. 제주도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한다. 4 역시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여수의 복합 문화 공간 예술마루. 해안까지 건축물이 흐르는 듯 수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5 국제갤러리 3관은 금속 고리들이 외관을 덮고 있어 신비롭다. 6 현대카드 디자인 랩은 장 누벨이 디자인했는데,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을 돋우기 위해 사무실 특유의 느낌을 지양했다. 7 오픈리더 리스본은 영국 건축가 리스본의 2014년 위대한 8대 신설 미술관에 선정됐다. 9 알바루 시자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디자인한 건축물 안양파빌리온. 사진 홍철기.



“사회, 심리학, 인간, 커뮤니티, 과학, 기술에 시적 요소까지 여러 가지가 융합된 종합예술이 바로 건축이다.” 건축가 렌초 피아노(Renzo Piano)는 건축은 아주 특별한 예술이라고 칭송했다. 그렇다. 건축물을 찬찬히 살펴본다는 것은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기에, 예로부터 지식인들은 건축 여행을 떠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감성을 풍성하게 해주는 오감 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건축 여행은 매력적인 테마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간 떠나는 것이 어렵고,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해외여행이 어렵다면 우리나라에서 주말마다 건축 순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유명 건축가의 작품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선보인 건축물 몇 곳을 소개하려 한다.

스타 건축가들의 집결지, 제주

제주도는 몇 년 전부터 스타 건축가들의 작품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주목할 만한 근래의 건축물로는 본태박물관, 아트 빌라스를 꼽을 수 있다. 본태박물관은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설계로 세워졌다. 안도 다다오의 트레이드마크인 노출 콘크리트에 색감이 따뜻한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배치해 담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건축물의 단아한 라인과 한국의 전통 담장이 현대와 전통의 서로 다른 공간을 부드럽게 연결한다. 제2박물관이 하이라이트인데, 차마 아래로 홀과 전시실이 연결되는 전망 좋은 공간으로, 안도 다다오가 자존심을 걸고 만든 명상실도 있다. 롯데 호텔에서 운영하는 럭셔리 리조트 아트 빌라스(Art Villas)는 도미니크 페로, 구마 겐고, 승효상, 이종호, DA 글로벌 그룹 등 무려 5명의 건축가가 참여한 건축물이다. 프랑스의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는 리조트 내부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건물이 아닌 풍경의 재창조, 이것이 바로 아트 빌라스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제주의 풍경을 완성하는 논과 밭, 폭포, 추상절리 등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도미니크 페로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원형과 곡선의 패턴을 살려 이국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일본의 건축가 구마 겐고(隈研吾)는 동근 지붕 안에 제주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담은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했다. 오름의 곡선으로 지붕을 이어 주변 전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건축물은 포근함을 선사하며, 특히 히노키 육조와 티 룸에는 일본인 건축가 특유의 정갈함이 묻어 있다. 구마 겐고는 이외에 NHN 춘천연수원 프로젝트, 안양 페이퍼 스네이크 등을 설계했으며, 도미니크 페로는 이화여자대학교 ECC(Ehwa Campus Complex)와 여수의 복합 문화 공간 예술마루를 디자인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림픽경기장,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등 도전적 이미지의 작품을 설계한 도미니크 페로지만,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작품은 다소 정숙하다. 이화여대 ECC는 평범한 대학 풍경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낯선 건축물일 수 있다.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듯한 좌우대칭 구조지만, 실제로는 햇빛이 잘 드는 6층 건축물이다. 여수의 예술마루도 이화여대 ECC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선사하는 지형을 따라 흐르는 듯한 작품이다. 망마산 전망대와 공연장, 상설 전시장이 산과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화여대 ECC와 마찬가지로, 주요 공간은 지하에 있지만 햇빛이 잘 들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또 이화여대 ECC와 예술마루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리 지붕에 태양전지 시스템을 설치해 건물 내에 필요한 전기를 일부 조달하며, 외벽의 열을 이동시키는 열 미로(thermal labyrinth) 시스템으로 공기를 이용해 건물의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따라서 도미니크 페로 건축 산책에는 내외관 디자인 감상뿐 아니라 에너지 관리에 대한 고찰까지 수반되어야 이상적이다.

건축 거장들이 서울을 주목하는 이유

서울 역시 건축 거장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관한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 역사는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가 공간 디자인을 맡았다. 그의 디자인은 꼭 필요한 것으로만 구성하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미학적 감성이 특징이다. 로비는 장식을 배제하고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다크 우드와 그레이스톤 등을 중심으로 해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무채색 공간이지만 차가운 이미지를 주지 않는 것은 따뜻한 질감의 소파와 펜던트 조명, 도자기 소품이 어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피에로 리소니가 직접 디자인한 소파와 테이블도 배치되어 있다. 객실 역시 일반적인 비즈니스호텔과는 다르게 바닥에 원목 마루를 깔아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며, 욕실 벽면에도 모자이크 타일이 장식되어 있다. 세계 유명 호텔을 디자인한 피에로 리소니의 호텔을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 반갑다. 소격동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3관은 기존 1, 2관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요소를 고려해 미국의 젊은 건축가 플로리안 아이덴버그(Florian Idenburg), 징 리우(Jing Liu)가 설계했다. 1, 2관 뒤편에 위치하며, 3관 건축 디자인 콘셉트와 작업 모델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영구 소장되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등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한 곳으로 유명하다. 플로리안 아이덴버그와 징 리우는 겹쳐 정선의 수목와 '정인연우'와 한국의 도자기가 라

인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물을 디자인했다고 한다. 가까이서 보면 직물과도 같이 촘촘한 메시(mesh)의 작은 금속 고리들이 그물처럼 기하학적 건축물의 외관을 뒤덮고 있는 형상인데, 이스티엔리스 스틸 베일은 시시각각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층고가 높고 채광량의 광량 조절이 가능해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채로운 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장 누벨이 만든 사무실, 현대카드 디자인 랩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의 현대카드 디자인 랩은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부러울 공간이다. 장 누벨이 만든 오피스라면 얼마나 근사할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2013년 밀라노 가구박람회를 방문한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과 장 누벨은 우연한 만남을 갖고, 〈홈 & 오피스〉 전시장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무더비의 루브르 박물관 분관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분주한 장 누벨이었지만, 현대카드의 디자인 랩 제안이 흥미로워서 기꺼이 수락했다고 한다. 기존 사무실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거주장스러운 형식 뜯어내기와 빛 활용에 집중해 설계했다. 마감재의 피니시를 그대로 쓰길 원한 건축가의 의견대로 나무 바닥 등을 다 뜯어내 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만 덮은 공간은 마치 창고 같다. 또 폐쇄적인 사무실 특유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 안에서만 보이는 원웨이 글라스를 사용해 외부의 빛이 내부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사무실 전체가 아닌 일부 공간에만 빛이 들어오게 조절하면서 빛을 활용해 업무 집중도와 무드를 동시에 잡았다. “현대카드 디자인 랩은 필요에 따라 각각의 장소, 업무 환경, 재고 관리, 때로는 숨겨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장소, 사람 수에 따라 회의실을 합치거나 나눌 수 있는 유연성과 협업의 즐거움을 고려한 공간입니다. 또 사무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이며, 지속적 대화의 공간이기도 하지요.” 장 누벨은 디자이너들이 ‘즐거워하고, 창조하고, 교환하며’ 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더 독창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년에 사무 공간 디자인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장 누벨이 만든 이곳을 관람하면 도움이 될 것. 장 누벨은 이미 삼성미술관 리움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장 누벨, 렘 콜하스(Rem Koolhaas),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건축물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 건축 애호가라면 꼭 방문해야 할 명소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플라토 미술관에서 건축 전시를 한 우리나라 건축가 조민석이 리움 건축가 중 한 명인 렘 콜하스의 수제자라는 사실. 조민석이 지난해 한국 최초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한 데 스텐스의 가르침이 조금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알바루 시자의 작품을 만나

유럽에 여행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건축물 기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유럽 건축 여행에서 안토니오 가우디(Antoni Gaudí) 다음으로 회자되는 건축가가 바로 알바루 시자(Álvaro Siza)다. 이렇게 가우디만큼이나 유명한 건축가 알바루 시자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3개나 있다는 것을 아는지? 포르투갈 출신의 알바루 시자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안양파빌리온, 아모레퍼시픽 연구원을 설계했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다. 포르투 세할베스 현대미술관, 아베이루 대학교 도서관, 리스본 엑스포 파빌리온 등이 대표작이며, 1992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지상 3층, 지하 1층의 수려한 백색 건물이다. 안양파빌리온은 알바루 시자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설계한 건축물이다. 바라는 위치마다 외부 풍경과 내부 공간을 다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독특한 비정형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사용해오던 알바루 시자 홀이라는 이름 대신 2013년에 안양파빌리온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개관했다. 안양파빌리온에는 공원도서관, 만물자연구실, 프로젝트 아카이브 등이 있다. 그리고 보니 우리나라에는 생존한 모든 스타 건축가들의 작품이 총집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탈리아 건축가 렌초 피아노가 설계한 KT 광화문 신사옥이 최근 완공되었고, 영국의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도 2016년 대전에 완공 예정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에 참여할 정도다. 노먼 포스터는 밀레니엄 브리지, 런던 시청, 뉴욕 허스트 타워 등 세계의 랜드마크를 설계한 아티스트로,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역시 우리나라의 명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이테크 연구 시설답게 지원 재활용 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과 자연 채광을 이용한 조명 최소화 등의 에너지 절감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거장은 아니지만 젊은 부부 건축가 최성희, 로랑 페레라(Laurent Pereira)가 설계한 양주시립 정육진미술관은 2014 김수근 건축상 수상과 영국 BBC가 2014년 위대한 8대 신설 미술관으로 선정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개관한 떠끈떠끈한 미술관이기에 건축물도 보고 미술 작품도 감상하는 주말 여행지로 추천할 만하다. 아이디어 전환이 필요한 날, 이국적인 랜드마크를 산책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가까이 두기도 알지 못했던 건축가의 작품을 도시 곳곳에서 발견하는 재미와 함께, 건축물 안의 콘텐츠는 덤이다. 건축가들의 해외 소재 작품과 비교해보는 센스까지 발휘해보자. **IS** 글 이소영(사건 미술에 종사하다), 서울, 그 카페(출판사) 저자

SHOWROOM



토즈

바버리



렌트



프리다



피에르 아르디

알테아



브루넬로 쿠치넬리



자방시



홍 브라운



펜디



피에리



알테아



GOLF



엔포리오 아르마니



티파니



바이크림



에스티 로더



샤넬

스와로브스키 하트 펜던트 컬렉션 스위로브스키에서 2015 S/S 시즌을 맞아 사랑스러운 하트 펜던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하트 모티브의 형태와 핑크·골드·화이트 컬러의 크리스탈이 어우러져 사랑스러운 빛을 발산한다. 27개의 하트가 합쳐진 형태와 나란히 놓인 형태의 27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큐피드 펜던트와 깔끔한 오픈 하트 형태의 큐피드 펜던트로 출시된다. 문의 1661-9060

브레게 볼랑 드 라 라인 브레게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우아함을 담은 새로운 주얼 워치 '볼랑 드 라 라인'을 국내에 선보인다. 볼랑 드 라 라인은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에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우아한 실크와 레이스 모티브를 연상시키며, 새틴 소재의 스트랩은 우아한 드레스 자태를 닮았다. 특히 정교하게 세팅된 다이아몬드와 2개의 블루 사파이어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며 매혹적인 빛을 발한다. 볼랑 드 라 라인은 링,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구성된 주얼리와 세트를 이룬다. 문의 02-6905-3571

카시오 오세너스 OCW-G1000 카시오에서 풀 메탈 전파 송신 세계 오세너스의 신모델 'OCW-G1000'을 선보인다. OCW-G1000은 2004년에 출시되어 탄생 10주년을 맞이한 오세너스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탄생시킨 모델. 세계 최초로 GPS 위성 전파와 표준 전파의 2가지 방식으로 시간 정밀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밴드부터 케이스까지 모두 가깝고 내구성이 강한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02-3143-3011

파르미자니아 톤다 메트로그래프 파르미자니아에서 남성을 위한 '톤다 메트로그래프'를 선보인다. 전체적으로 슬림한 원형 스틸 케이스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지니며, 새롭게 제작한 인하우스 무브먼트 PF 315 역시 매우 정밀하다. 브레이슬릿 각각의 링크에도 파르미자니아의 물방울 모양을 사용했으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해 최고의 착용감을 선사한다. 문의 02-310-1737

엔포리오 아르마니 마르코 슬림 워치 엔포리오 아르마니 워치 컬렉션에서 세련된 스타일의 마르코 슬림 워치를 선보인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레더 스트랩의 마르코 슬림 워치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얼리로 착용해도 손색없다. 특히 부드러운 스커어링 케이스가 돋보인

다. 39x32mm와 30x25mm의 2가지 케이스 사이즈로 출시된다. 문의 02-3440-6500

티파니 티파니 세팅 링과 가드 링 티파니에서 웨딩 마치의 계절인 봄을 맞아 티파니 세팅 링과 가드 링을 예뻐로 제안한다. 티파니를 대표하는 티파니 세팅 링은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상으로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세팅 밴드 링은 웨딩 링을 보호하는 가드 링으로 제작된다. 또 2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전국 티파니 매장에서 티파니 브라이덜 페어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할 것. 문의 02-547-9488

리처드 밀 오픈 링크 스트랩 리처드 밀 RM07-01과 RM037 모델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새로운 스트랩 '오픈 링크'를 선보인다. 오픈 링크는 모두 수공으로 마무리한 브레이슬릿 형태의 스트랩으로, 각 링크는 마이크로 블라스팅과 새틴 브러싱·폴리싱 처리되었다. 캐주얼하고 편안하며 가벼운 것이 특징. 문의 02-2230-1288

반클리프 아펠 하이 주얼리 이벤트 볼 드 레전드 개최 반클리프 아펠이 지난 2월 6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하이 주얼리 컬렉션 '볼 드 레전드'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볼 드 레전드 컬렉션은 20세기를 아름답게 장식한 5개의 무도회 중센 추리 볼, 오리엔탈 볼, 프루스트 볼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또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스톤들의 조합으로 완성된 플래드 라 샹스 작품들과 아이코닉한 작품인 자프 네크리스, 요정 모티브의 미스타리 세팅 작품도 선보였다. 이와 같은 컬렉션 프리뷰를 시작으로 27가지의 모델소와 갈라디너로 마무리되었다. 문의 02-3440-5660



리처드 밀



스와로브스키



브레게

카시오

파르미자니아



반클리프 아펠

미크 제이콥스 소르베 에디션 미크 제이콥스에서 봄을 맞아 데이지 소르베와 데이지 오쏘프레쉬 소르베 2가지의 소르베 에디션을 출시한다. 데이지 소르베는 기존 데이지의 꽃 향에 달콤한 과일을 살짝 덧입혀 청순한 분위기를 지니며, 데이지 오쏘프레쉬는 플로럴 프루티 계열로 사랑스러운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향이다. 특히 화사한 꽃으로 둘러싸인 상큼한 보틀 디자인에서 봄 기운이 느껴진다. 문의 02-3443-5050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엘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너지 크림 에스티 로더에서 신제품 '리-뉴트리브 엘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너지 크림'을 출시한다. 잔구현 원료인 블랙 다이아몬드 트라블 추출물이 피부의 활력을 촉진하고, 에스티 로더의 독자적인 유스-서스테이닝 테크놀로지인 리프팅 테크놀로지가 피부 노화를 늦춘다. 또 정제된 24K 골드와 향긋 성분은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며 남양진 주 성분은 순간 피부더러져 뽀얗게 부드럽고 보습보습하게 마무리된다. 피지를 흡수하고 동시에 수분을 지켜주는 똑똑한 제품. 특히 덧날 때도 뽀얗지 않아 하루 종일 절정 없이 완벽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문의 080-347-0089

인생로랑 르 명 앙크르 드 뽀 인생로랑에서 새로운 로랑스팀 파운데이션 '르 명 앙크르 드 뽀'를 출시한다. 잉크처럼 가벼운 리퀴드 포뮬러가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더러져 뽀얗게 부드럽고 보습보습하게 마무리된다. 피지를 흡수하고 동시에 수분을 지켜주는 똑똑한 제품. 특히 덧날 때도 뽀얗지 않아 하루 종일 절정 없이 완벽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문의 080-347-0089



인생로랑

인생로랑 르 명 앙크르 드 뽀 인생로랑에서 새로운 로랑스팀 파운데이션 '르 명 앙크르 드 뽀'를 출시한다. 잉크처럼 가벼운 리퀴드 포뮬러가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더러져 뽀얗게 부드럽고 보습보습하게 마무리된다. 피지를 흡수하고 동시에 수분을 지켜주는 똑똑한 제품. 특히 덧날 때도 뽀얗지 않아 하루 종일 절정 없이 완벽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문의 080-347-0089

인생로랑 르 명 앙크르 드 뽀 인생로랑에서 새로운 로랑스팀 파운데이션 '르 명 앙크르 드 뽀'를 출시한다. 잉크처럼 가벼운 리퀴드 포뮬러가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더러져 뽀얗게 부드럽고 보습보습하게 마무리된다. 피지를 흡수하고 동시에 수분을 지켜주는 똑똑한 제품. 특히 덧날 때도 뽀얗지 않아 하루 종일 절정 없이 완벽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문의 080-347-0089

인생로랑 르 명 앙크르 드 뽀 인생로랑에서 새로운 로랑스팀 파운데이션 '르 명 앙크르 드 뽀'를 출시한다. 잉크처럼 가벼운 리퀴드 포뮬러가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더러져 뽀얗게 부드럽고 보습보습하게 마무리된다. 피지를 흡수하고 동시에 수분을 지켜주는 똑똑한 제품. 특히 덧날 때도 뽀얗지 않아 하루 종일 절정 없이 완벽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문의 080-347-0089

FASHION